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그리운 어머니 II

- <怀念母亲 II> 韓國語 翻譯論文 -



秦景美

2009年 8月

그리운 어머니 II

- <怀念母亲 II> 韓國語 翻譯論文 -

指導教授 宋 炫 宣

秦 景 美

이 論文을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9年 8月

秦景美의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安 在 哲 ①

委 員 宋 炫 宣 ①

委 員 趙 洪 善 ①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2009年 8月

목 차

역자 서문.....	1
11. 블로그 하세요?.....	4
12. 굿바이 달라스	23
13. 연꽃	28
14. 구성하오 교수 편안히 가시오	30
15. 가을 잎	36
16. 미명호에 대한 단상	38
17. 사랑에는 후회가 없다	68
18. 그리운 어머니	70
19. 작은 것의 아름다움 - 리히텐슈타인	82

역자 서문

본 번역본은 현재 중국에서 ‘신이민 작가의 선두 주자’ 라고 불리는 사오권의 수필집 <그리운 어머니>의 11장부터 19장까지 차례로 번역한 것이다. ‘신이민’이란 일반적으로 8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것을 말하는데, 사오권은 그의 다양한 경험과 사물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으로 ‘신이민 문학’의 실력과 작가로 인정받고 있다.

수필은 개인의 개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문학 장르로, 사오권의 이번 수필집 <그리운 어머니>에서는 작가의 그리움을 많이 엿볼 수 있다. 떠나야 할 달라스에 대한 그리움, 연꽃에 대한 그리움, 이미 세상을 떠난 친구에 대한 그리움, 지는 낙엽에 대한 그리움, 모교에 대한 그리움, 리히텐슈타인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사오권은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나 사물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오랜 시간 고국을 떠나있었던 ‘신이민 작가’라는 독특한 배경으로 인해 이런 그리움이 한층 더 심화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번역을 하면서 중국어 표기법에 대해 많이 고민하였다. 한자음 표기와 중국어음 표기 사이에서 애매한 부분은 수차례 수정을 통해, 자신만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기준에 맞게 하더라도 문장 구조상 어울리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한 문장 흐름과 어울리도록 표기하였다.

예를 들어 인명 같은 경우, 1911년 신해혁명을 기준으로, 그 이전 인물은 한자음을, 이후 인물은 중국어음 표기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미명호에 대한 단상>에서 나온 장진(張珍 대군구사령) 같은 경우 1911년 이전 인물이기 때문에 한자음 표기가 맞지만, 여러 나열되는 인물들이 중국어음 표기를 사용해서, 문장 흐름 상 중국어음 표기를 사용하였다.

또한 학교 명칭은 고유명사로 간주하여, 기존에 있는 학교와 과거 학교 명칭

모두 중국어 표기법으로 표기하였다. 원래 현재 쓰이지 않는 학교 명칭은 한자음을 사용해야 하지만, 현재 있는 학교의 옛 이름이기 때문에, 역시 문장의 흐름상 중국어음 표기를 따랐다. 중국어음 표기는 1986년 문교부의 <외래어 표기법>을 참고하였다.

그리고 거리, 건물, 호수, 탑, 산은 한자음 표기를 하였다. <연꽃>에서 연꽃을 지칭하는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잘 쓰이지 않아 모두 한자음으로 표시하였다. 벽파선자(碧波仙子)와 취개佳人(翠蓋佳人) 역시 우리나라에서 쓰이지 않지만 중국에서 연꽃을 지칭하는 말로 자주 쓰여, 한자음을 그대로 살리고 한자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이번 번역에서 올바른 글쓰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꼈다.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내용이 손가락 끝에서 글로 나오기까지, 나의 표현의 한계에 부딪히고 또 부딪혔다. 수필이라고 해서 읽을 때는 부담 없이 보았지만, 막상 번역을 하려니, 우리글로 표현하는 것과 그냥 읽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인터넷 시대를 사는 오늘날, 내 자신도 돌아켜보면 독서를 등한시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저 클릭 한번으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에, 단순히 정보를 찾았다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하지만 그런 정보들은 순전히 내 것이 아닌, 그저 짜 맞춰진 것이다. 그러기에 생각의 폭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다. 앞으로 더욱 많은 중국 작품과 한국 작품을 통해 표현의 영역을 넓혀 보고자 한다. 올바른 글쓰기를 하기 전에 많은 독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달았다.

작가 소개 - 사오권(少君)

이 책의 작가인 사오권(少君)의 본명은 첸젠쥘(錢建軍)이다. 유명한 여행 작가로, 가장 먼저 중문 인터넷상에 글을 쓰기 시작한 작가 중 한 명이다. 1960년 베이징 출신으로, 베이징 대학 음향 물리학과를 졸업하였다. 이후 경제 일보 기자를 거쳐, 1988년 미국으로 건너가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미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미국TII회사의 부이사장직

을 역임하였고, 중국에서 샤먼대학, 화차오대학, 난창대학 교수를 겸임하였다. 인생의 최고조인 40세가 되던 해에 갑자기 퇴직을 결심하고, 현재 오로지 여행과 습작에 몰두하고 있다. 현재 미국 피닉스에 살고 있다. 저작으로는 <피닉스 여담>, <미명호>, <인생고백>등이 있다.



11. 블로그 하세요?

인터넷상에서 나는 노인 축에 든다. 1987년 처음 인터넷을 접한 이후, ‘동동’이란 아이디로 수많은 글을 썼고, ‘인터넷 할아버지’라는 애칭도 얻었다. 게다가 거의 모든 중문 인터넷 역사와 관련한 학술 저서와 인터넷 역사의 뒷이야기에도 내 아이디가 등장했다. 나는 인터넷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자부했고, 자칭 ‘인터넷 형님’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한 어린 친구가 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블로그를 하냐고 물었다. 마치 내가 과거에 누군가에게 야후를 하냐고 물었던 것처럼 말이다. 나는 블로그를 알지 못했다. 너무나도 당혹스러워 구글에서 황급히 블로그를 검색하였다. 그러자 인터넷상에서는 이미 많은 블로거들이 활발히 활동 중인 것을 알게 되었다. 블로그는 오늘날 인터넷상의 유행으로 자리 잡았다.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나도 늙었구나!

블로그란 무엇인가? 이것은 Email, BBS, ICQ의 뒤를 이어 네 번째로 등장한 인터넷상의 교류방식이다. 영문단어 ‘Blog’는 ‘WebLog’의 축약형으로 피터 머홀즈가 1999년에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블로그는 특수한 인터넷 개인 출판 형식으로, 하나의 블로그는 바로 하나의 홈페이지이다. 보통 간단하면서, 자주 업데이트 되는 포스트들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포스트들은 가장 최근 연도와 날짜별로 정리되기 때문에, 블로그를 ‘인터넷 일기’라고 부른다. ‘보커(博客)’는 원래 블로그를 하는 사람, 즉 블로거를 의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블로그의 중문 명칭이 되었다. 하지만 블로그와 인터넷 일기는 똑같은 것은 아니다. 일기와 블로그가 중요시 하는 점은 다르다. 일기는 개인적이며 매우 은밀하지만, 블로그는 개인적인 성질과 공공성을 함께 갖고 있는 결합체이다. 블로그가 갖고 있는 가장 우수한 점은, 그저 개인의 생각과 자신의 일반적 경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으로 인터넷 정보를 검색하여, 자신의 블로그 상에 훌륭한 내용을 선별·기록하고, 타인에게 제공함으로써, 모두가 공유하는 더 높은 가치의 정보를 만드는 것이다. 블로거가 막 활동을 시작한 1998년 당시, 전 세계에는 30여명의 블로거만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2005년 <인터넷주간>에서는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블로거 수가 이미 100만에서 500만으로, 40초마다 하나씩 빠

르게 블로거가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블로그는 세 가지 측면에서 주로 응용된다. 첫째는 새로운 개인 교류 방식이며, 둘째는 개인이 중심이 되는 정보 여과와 지식 관리이고, 셋째는 개인이 중심이 되는 전파 방식이다. 그 중 명확한 개인의 색채를 띠고 있는 전파 방식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개인이 중심이 되는 블로그는 독특한 시각과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전통적 미디어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특히 언론계가 수년간 쌓아온 전통적 관념과 도덕적 규범에 큰 충격을 가져왔다. 1998년, 초기 개인 블로그 ‘드러거 리포트’가 가장 먼저 ‘클린턴 섹스 스캔들’을 특종 보도하면서 처음으로 세상에 블로그의 힘을 보여주었다. 2001년 9·11 테러를 통해 블로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뉴스 발원지로 인정받았다. 당시 거의 모든 주요 사이트들은 방문자의 폭주로 거의 마비가 되었다. 이 때, 블로그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전 세계 블로그 서비스 사이트인 블로거 닷컴(blogger.com)에 수백 개에 이르는 9·11 블로그들이 생겨났다. 그들은 수많은 사진과 영상, 현장 상황과 목격자 증언, 그리고 가족과 친구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간절함까지 블로그에 실어, 전문기자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다. 2003년 바그다드의 살람 파스는 화염 속에서, 창문 밖 바그다드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사이트에 올려, 그의 개인 블로그가 전쟁 웹사이트 10대 링크 중 1위를 차지하였다. 2003년 6월 유명한 교육 블로거 짐 로만세스코는 뉴욕타임즈의 ‘가짜 기사사건(제임스 블레이어 스캔들)’을 제일 먼저 보도하였다. 이로 인해 오랜 역사의 뉴욕 타임즈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하였다. 2005년 7월 초 런던 지하철 폭발 사고 당시, 많은 블로거들이 문자와 사진 전송 방식을 통해, 기존 뉴스보다 더욱 빠르게 세계인들에게 처음으로 현장을 소개했다. 이로써 전 세계인들은 블로그를 통해 생생한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다

블로그 현상의 발전에서, 특히 블로그가 보여주는 거대한 전파능력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블로그는 이미 전통적 뉴스 기자에게 예비 경보 시스템이 되었으며, 아직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곧 터질 뉴스를 미리 알려주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블로그를 ‘언론미디어 3.0’을 대표한다고 한다. ‘1.0’은 전통적

미디어를 말하고, ‘2.0’은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뉴미디어를 뜻하며, ‘3.0’이 바로 블로그를 추세로 하는 개인 미디어를 말한다. 블로그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개인적인 성질과, 개방성 그리고 상호 교류라고 말할 수 있다.

블로그는 매우 간단하면서 빠른 인터넷 개인 출판 형식으로, 어떠한 네티즌도 몇 분 내로 자신의 사이트를 만들 수 있고, 자유롭게 자신의 글을 게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할수록 정의 내리기 어렵다. 블로그는 인터넷 상의 독립적인 사과의 샘이며, 미디어의 오픈 소스 운동(openopen source, 원시 부호나 표준을 공개하여 자유로운 개작·재배포 등을 허용하면서도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 개발을 장려하는 소프트웨어계의 뚜렷한 제도화된 흐름)이고, 문자로 대화하는 인터넷 상의 커피숍이다. 저명한 IT 칼럼리스트 폴 앤드루스는 블로거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거대 미디어들이 갖고 있던 공신력의 빠른 추락이 작용했다며, 블로거들은 전통적 미디어의 ‘과수꾼’들을 전복시키는데 노력했다고 밝혔다.

“블로거는 정보가 개인에서 대중으로 전파되는 ‘뉴스’의 본질까지 변화시켰다. 그저 ‘등록하기’라는 버튼만 누르면 누구라도 자신의 작품을 올릴 수 있고, 이것은 전통적 출판 양식을 변화시킬 것이다.”

블로거의 빠른 증가로, 블로그라는 단어는 동사의 의미도 포함하게 되었다. ‘Do you Blog?’라는 말이 인터넷 상에서 새로운 인사말이 되고, 인터넷 상의 유행이 되었다. 블로그의 빠른 확대로 블로그의 초기 목적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 현재 인터넷 상의 많은 블로거들의 올린 글과 댓글은 블로그의 목적과 큰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블로그는 소통방식이 전자 우편이나 채팅 방식보다 훨씬 더 쉽고 간편해서, 이미 가정·회사·각 단체에서 매우 활발히 사용되는 소통 수단이었다. 어떤 이들은 블로그는 ‘빠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지식 관리 시스템’이고, 새로운 형식의 ‘협동 미디어’이며 ‘정보가 끊임없이 흐르는 인터넷 여정’이자, ‘개인 인터넷 출판 커뮤니티’이라고 말했다. 또한 블러그를 ‘인터넷상의 정보 레이어 시스템’이고 ‘스스로 조직된 인터넷 생태’이며, 인터넷 시대를 사는 개인의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말했다.

블로그는 시간적 특성을 갖고 있고, 분류 되어진 형식으로, 평론 등의 방식을 통해 글쓴이와 독자가 교류할 수 있는 것으로, 통상적인 표준에 부합하는 내용 요점을 가진 인터넷 콘텐츠 관리 시스템(CMS)이다. 또한 매우 간편하고 쉽게 개인 정보를 게재한다. 무료 이메일의 가입과 편지 쓰기, 편지 보내기처럼 개인 홈페이지를 더욱 쉽게 만들고 편리하게 업데이트 할 수 있다. 블로그는 공개된 개인 공간이다. 하이퍼텍스트 링크, 인터넷 상호작용과 업데이트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정보의 끊임없는 여행 중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가장 가치 있는 정보와 지식을 정선하고 연결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일과 생활 속 이야기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변덕이는 아이디어들을 실시간으로 기록·게재하여 개인의 무한한 표현력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정보를 같이 공유하여 인터넷 상에서 모임을 만들 수 있어, 더욱 깊이 있는 교류 또한 가능하다.

오늘날 블로그는 젊은 세대 네티즌들의 새로운 생활 방식과 그들의 새로운 일의 방식을 대표하고 있고, 더욱 더 새로운 유행을 대표한다. 아래의 글은 어제 한 블로그에서 발췌한 것으로 13세 중국 소녀가 생일 전 작성한 몇 편의 일기이다.

-이름 : 신디

-나이 : 13세

-성별 : 여

-결혼 유무 : 미혼

-지역 : 중국, 베이징

-직업 : 학생

-좋아하는 것들 : 귀징밍(郭敬明), 한한(韓寒), 안니바오베이(安妮寶貝), 위추위(余秋雨), 장아이링(張愛玲), 조앤 캐슬린 롤링(해리포터 작가), 클램프(4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일본 공동만화 창작집단), 타케이 히로유키(武井宏之), 토카시 요시히로(富堅義博), 에이브릴 라빈, 브리트니 스피어스, 백스트리트 보이즈, 사라

브라이트만, 더 코어스, 보아

-관심분야 : 음악, 만화, 책, 잠자기, 게으름 피우기, 쇼핑, 친구와 놀기, 컴퓨터, 게임, 십자가, 숫자 13

-좋아하는 글귀 : 당신의 그림자를 바로 하기 위해 나는 이 세상을 뒤집었다.

-나를 간략히 소개하자면? : 나는 그냥 나다. 나는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관심 없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뿐이다. 가장 두려운 것은 세상에게서 버려지는 느낌…….

7/x/2005

정말이지 오랫동안 글을 쓰지 않았다. 저번에 결석하면서 미국으로 놀러갔을 때, 아빠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펜을 들어 말도 안 되는 말을 적었다. 무엇을 적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국가 자원을 낭비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적으면 되는 거 아닌가. 어쨌든 무슨 책임을 질 필요는 없으니까…….

7/x/2005

오늘은 5교시 수업에다가 80분씩 수업을 하였다. 완전 끔찍했다. 더욱 잔인했던 것은 수업이 모두 주요 과목이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시험 답안지에 대한 평가까지……. 나는 모두 짜증났다.

요즘 들어 내가 너무 인내심이 없는 것 같다. 수업시간에 잘 앉아있지도 못하고, 수업이 끝나도 이전처럼 차분하지 못하다. 갑자기 요즘 내가 너무 이상해졌다. 어떤 때는 누군가와 싸우기도 하고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다. 공부에도 점점 더 신경을 쓰지 않고, 성적이 좀 나아지긴 했지만, 그것도 거북이 걸음마냥 아주 조금 나아졌다.

갑자기 누군가 내가 차갑게 느껴진다고 했지만, 그것은 냉정한 것이 아니라 그저 느낌일 뿐이라고 말했다.

나는 이상해서, 많은 사람에게 물어봤다. 하지만 대부분 친구들이어서 그런지 내 질문을 그저 웃어 넘겼다.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다.

“니가 전에는 좀 차가워 보여서 다가가기 힘든 느낌이었거든. 그래서 니 옆에 가기가 좀 그랬는데, 지금 친구가 되고 나니 그런 차가운 느낌은 많이 없어졌어. 알고 보면 굉장히 사귀기 편하고, 오히려 골탕 먹이기 쉬운 걸, 하하…….”

내가 친구들을 잘 사귀었어야 했는데 하며 한숨 쉬고 난 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정말이지 차갑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나는 예의를 지키며 최대한 따뜻해지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냉정할 때가 있다. 사람을 대할 때 나는 항상 예의를 지켜, 그들은 나에게 쉽게 다가오질 못할 느낌을 받는다. 이것은 나의 습관이다. 하지만 나는 내가 처음부터 갖고 있던 생각을 기억한다. 바로 사람과 사이의 거리. 아마 예의만 지켜진다면, 사람과 사람사이에 거리는 충분히 만들어진다.

나는 이제껏 이렇게 믿어왔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 쉽게 잊을 수 있다고. 마음을 주지 않아야 깊이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기억하지 않아야 신경 쓰지 않는다고.

여태껏 신경 쓴 적이 없다면 상처를 받지 않는다.

감정은 영원하지 않다. 한 사람을 좋아하고, 증오하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고, 영원하지도 않다. 감정은 절대 믿을 수 없다. 그것은 변할 수 있고, 게다가 매우 빠르게 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시간이 흘러도 사물은 변함없지만,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잃어버리는 것이 두렵기에 아예 가지려 하지 않는다.

지금의 나는, 다시 나에게 말없이 상처주고 싶지 않다.

정말이지 그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

7/x/2005

요 며칠 베이징 날씨가 정말 장난 아니게 덥다. 찌는 듯하다.

매일 나를 늦은 밤까지 잠 못 들게 만든 그는 더 이상 없다. 너무 외롭다.

정말이지 모르겠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힘이 없다고 느껴지고, 아무 이유 없이 이리저리 방황한다.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너무 많은 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 같다.
하지만 내 짐을 덜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외로움의 의미를, 바로 이 순간 나는 아주 절실히 느낀다.
하지만 그는 이해하지 못한다.
외롭지만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

7/x/2005

모두 다 실종된 것 같다. 베티, 린, 에밀리……. 모두 내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는다. why?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일까? 그들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나를 버렸다. 상관없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은 두렵지만, 누군가에게 친구해 달라고 조를 수는 없는 일이다. 나에게 관심이 없다면, 그걸로 됐다. 니들 맘대로 해.

아빠, 엄마가 집을 보러 나가셨다. 길에서 노숙하는 것만 아니라면, 이렇게 많은 짐이 필요할까? 게다가 아빠, 엄마가 이렇게 많은 짐을 살 돈은 갖고 있는지? 나는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지만 아빠, 엄마가 버는 돈에 비해 허황되게 사치나 해서 빛이 썩여가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란다면, 난 별 다른 의견은 없다. 단지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말이다. 내일은 시험이다. 마음 속 일기는 어쩔 수 없이 잠시 중단해야겠다. 아쉽다. 시험에 점점 자신감이 없어진다. 시험에서 박살날 것이 뻔하다. 그래도 상관없다. 박살나면 박살나는 거지 뭐, 어쨌든 내 머리가 박살나는 건 아니니까, 죽진 않아.

이유 없이 답답하다.

정전이 되고, 친구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7/x/2005

오늘은 정말이지 따분한 날이다. 하루 종일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간 것 같다. 24시간이 눈 깜짝 할 사이에 지나갔다. 아마도 시험이 막 끝나서 마음이 홀가분

해서 그런가 보다. 며칠이 지나면, 더욱 끔찍한 학교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걸 잊고 있었다. 흑흑 ㅠㅠ

아빠, 엄마가 본인들에게 나 같은 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나보다. 내 방을 꾸밀 준비를 하신다. 오전 내내 이리 저리 뛰어 다닌 후, 내 방의 모든 가구를 온통 검정 색으로 꾸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P. S. 나는 원래 공포영화를 보지 않는다. 무서워서…….)

오후에 친구들이 막 잠이 들려는 나를 깨웠다. 하지만 나는 그저 곁에서 그들을 바라봤을 뿐이었다. 나를 공기 취급 할 것이었으면, 도대체 나를 왜 불렀는지……. 처음으로 친구들이 나를 쫓아내듯이 다그치며, 나에게 뭐 하러 왔냐고 물었다. 이것은 더 이상 내가 쪽 팔린다는 문제가 아니다. 그들은 내 친구들이 아니던가? 나도 그들에게 처음으로, 한마디 말도 없이 다른 곳으로 가 버렸다. 친구가 많으면 좋다. 이곳에는 날 붙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른 곳에서, 에밀리는 한참 동안이나 나를 기다렸다.

나는 정말이지 기분이 나쁘다. 너희들은 모를 거야, 내가 무슨 일까지 희생하면서 너희들 같은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는지. 자신들이 뭐라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 나한테 너희들은 그저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었을 뿐이야. 무엇이든 영원한 것은 없어.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신경 쓰지도 않고 묻지도 않을 것이다. 나에게는 그렇게 할 권력도, 자격도 없으니까. 나는 결혼 후에 남편이 바람을 펴도 상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니까. 하하.

그래서 너와 너희들에게 나는 아무 상관도 하지 않을 거야. 이것은 결코 냉정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야. 나는 그저 아무도 속박하고 싶지 않을 뿐이다. 나는 나와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절대적 자유를 주고 싶어.

어쩌면 내가 하는 행동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또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 사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내가 경험을 통해 느낀 나의 진리이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 또한 절대적인 잘잘못도 없다.

그래서 나는 그저 생각 속에서 상상의 나를 만들 뿐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고 나서야 알았다. 나는 할 수 없음을.

나는 그렇게 위대하지도 않고, 그렇게 초연하지도 않다. 린은 우리가 갖고 있

는 것은 단지 평범함 뿐 이라고 말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사는 한 우리는 일찍이 순수함을 잃었다. 사람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을 때, 조금씩 조금씩 세상에 융화되고 동화되면 조금씩 때가 묻는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결국 이런 것이다.

나는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

스티븐, 베티, 그리고 린. 그들은 절대 알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미 자책한다. 비록 모든 일에 대해 다 알지 못하더라도.

미안하다.

7/x/2005

속상하다.

누군가랑 싸우고 싶다.

7/x/2005

수학은 완전 망했다. 흑흑ㅠㅠ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그래도 물리는 생각 외로 좋은 성적이 나왔다. good~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어떤 때는 정말이지 공평한 것 같다.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다.

친구가 돌아오면, 또 누군가는 떠나듯 말이다.

그는 오늘 나를 잊겠다고 말했다. 나로 인해 성적이 곤두박질 쳤다고 말이다. 내 잘못이라고……. 암튼 그는 나에게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다.

무슨 말은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제 그의 마음을 받아준다고 이야기하려 했는데, 그 말을 미처 하지 못했다. 후회할 뿐이다. 왜 미리 그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것일까? 며칠만 먼저 말했더라도…….

그만두자, 내가 용기가 없어서 말을 꺼내지 못하고선, 누구를 탓한담? 너 정말 못났다.

다음 달에 그의 목표물은 누가 될까? 하지만 또 한편으론 알고 싶지 않다. 알

면 울 것 같다.

갑자기 지미의 <향좌주, 향우주>가 좋아졌다.

7/x/2005

사실 무엇 때문에 그녀에게 화가 났는지 모르겠다. 전에 친구에게 배신당한 적도 있었지만, 이번처럼 충격 받은 적이 없었다. 내가 이제껏 친구들에게 아무런 존재도 아니었던 것 같다.

오늘 너 왜 그런 거야? 다른 여자애와 별 대수롭지도 않을 일로 그렇게 따지다니, 너답지 않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나에게 이것을 설명해 줄 사람은 없는 것인가. 어떤 일들이 여자아이를 유치한 판하게 만드는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말이다. 아, 이런 말들이 왜 이렇게 익숙하게 들리는 것인지. 생각 좀 해보자, 아! 마치 연애소설에 나온 단어처럼, 미친 듯이 땀이 난다. 이럴 수는 없어.

잠깐만, 그녀는 나를 왜 배신한 거지? ‘그 남자’ 때문에? 그렇구나……. 하지만 나는 왜 그녀에게 화를 내지? 그 남자 때문은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내가 미쳤나? 정말 그런 건가? 안 돼!

아마도 내가 정말로 그를 마음에 두고 있나보다.

아이고, 하느님, 어떡하지? 누가 좀 어떻게 해야 할지 말 좀 해줬으면…….

미칠 것 같은 심정 속에서, 참혹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다. 너무 우울하다.

7/x/2005

사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버려지는 것이 두렵고, 혼자 남겨지는 것과 잊어지는 것이 무섭다.

진정한 나에게 있어 친구는 가장 중요하다. 그들은 나의 생존의 이유라고 말할 수 있다.

버려지는 것, 혼자 남겨지는 것, 잊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을 두려워하기에 나에

게 친구는 매우 소중하며, 그들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다.

버려짐을 두려워하는 나는, 영원히 내 마음을 강보에 뽁뽁 싸 숨겨 버리기를 바란다. 나는 자신이 진정으로 대범해지기를, 걱정하지도, 후회하지도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결국 나는 그렇게 대범하지 못하다. 이기적인 나는 갖가지 변명을 들어 내 맘에 안 드는 사람들을 배척한다. 아, 넌 정말 아무 쓸모가 없구나.

혼자 남겨짐을 두려워하는 나는, 내 진심을 마음 속 깊이 감춘다. 나는 늦여름 빛나는 태양빛 같은 미소로, 나와 속 깊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한다. 그녀들은 모두 나와 한 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고 나면 더 이상 우리 사이에 숨길만한 것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그저 조용히 그들을 도울 뿐이다. 나를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한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친구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매 순간, 순간마다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들이 우울한 것도, 상처받는 것도 싫다. 그렇지만 누가 나의 진심을 이해한 적이 있는가! 그들은 누군가 변함없이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를 보기 위해, 무언가 하는 것을 믿어 본 적이 없다. 친구라든지, 길에서 만난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어리석을 지라도, 진실을 알고 싶지 않다.

잊어지는 것이 두려운 나는, 차라리 아무에게 기억되지 않기를 원하다. 얻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잃는 것도 있는 법.

분명 이 모든 것이 지켜워지는 날이 올 것이다. 나는 마음의 문을 뽁뽁 잠그고, 예의바른 행동과, 화려한 언사로 그들을 배척하고, 내 자신도 배척한다. 하지만 나는 결국 너희들을 포기하지 못했고,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

정말이지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그림자다. 그를 찾으면 그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아이고, 무슨 어린애가 아직도 먼 나중 일을 생각하니? 미친 거 아냐? 공부나 해! 매일 여기서 엽살떨고 자신의 일을 까발린다. 웬 히스테리? 정상이 아니다. 내일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앞으로 중요한 시험이 두 개나 남았으니깐!

첫 번째 시험이 끝난 첫 번째 휴일에……

7/x/2005

과연 예상대로다. 세 과목 몽땅 죽 썼다. 정말 나답다.

다른 예상들도 모두 적중했다. 정말이다.

친구에게 버림받았다.

오늘 베틀이 눈 주위가 붉어져서 나타나 리타에게 그가 나를 좋아하는 것을 말해버렸다. 그가 며칠 전 스스로 인정했다고 한다.

리타는 화를 내었다가, 달래도 보았다가, 꾸밈도 늘어놓았다. 이미 말하지 않았어? 니가 내 말을 믿지 않았잖아, 누구를 탓해, 원망하지 마!

베틀은 말이 없었고, 알 수 없는 표정만 보였다.

이후, 억울한 내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두아(寶娥, 원 잡극 두아원의 주인공)도 이렇게 억울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리타가 무의식적으로라도 말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마도 누가 나를 배신했어도 몰랐을 것이다.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복잡하다. 베틀이 왜 확실하지도 않은 이유로 나를 멀리 할까? 왜 그랬을까?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지? 너희들한테 무슨 죄를 지은 거야? 너희와 친구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친구를 위해서라면 온갖 어려움도 이겨 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에 대한 대가가 이런 거야? 너무 어이가 없다. 나를 동곽선생(東郭先生, 필요할 때만 이용당하는 것에 대한 풍자)취급한 것이라면 이걸로 충분해. 두 번 다시 이렇게 당하지 않을 거야. 난 바보가 아니야.

베틀한테 실망한 것은 어떻게 말로 표현 못하겠다. 우리는 말이 필요 없는 좋은 친구였는데……. 나는 베틀을 언니처럼 생각했는데……. 남자에 하나 때문에 나를 배신하다니. 왜 그런 거야? 왜? 왜? 그 애랑은 그저 친구라고 말했잖아. 최소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내가 그 애를 맘에 두고 있냐고 물어봤을 때, 나한테 그저 친구라고 말했잖아. 니가 보내준 문자도 있어. 하지만 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와 그 애를 떼어 놓고 싶었던 거야. 왜 그런 거야? 너를 아는 애들이 너랑 친해지지 말라고 했어. 너의 마음속을 알 수 없다고, 비열한 방법을 쓴다고 말이야. 언젠가는 베틀 너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나는 너를 이길 수 없다고 말이야.

나는 그런 말을 믿지 않았고, 믿어 본 적도 없어. 하지만 그런 나에게 너는 너

무 큰 실망을 안겨주었어. 더 이상 실망할 수 없을 만큼……. 나는 더 이상 너를 곱게 두고 볼 수 없어.

물체 간의 작용은 상호적이래. 아인슈타인의 협의적 상대성 이론과 광의적 상대성 이론 이런 것에 나와 있어. 너는 나를 아프게 했고, 더 이상 친구라고 부를 가치도 없어. 나도 더 이상 이렇게 쉽게 당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나를 너무 쉽게 봤어. 내가 정말 화를 낸다면 장난 아닐 걸. 나를 원망하지 마. 이렇게 친구를 배신하는, 친구라고 부를 가치조차 없는 사람들은 정말 최악이야. 베틀 너 때문에 세상을 또렷하게 보게 됐다. 정말로 감사해.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는 더는 같이 하지 못할 거야.

나는 원래 비열한 방법으로 사람을 혼쫓내지 않아. 나는 너를 가만두지 않는다고 다짐한다. 나는 경험도 부족하고, 나를 밀어 줄 사람들도 많지 않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하지만 너와는 끝까지 갈 거야. 내가 이기지 못하더라도, 나만 당할 수 없잖아.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함께 화를 입는다’ 이것은 나의 좌우명 중 하나거든.

미안, 나는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알아. 그러기에 반드시 너도 그 마음이 어떤지 정확히 알게 해 주겠어. 너는 잘못된 방식을 썼어. 나는 내 방식대로 니가 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알게 하겠어.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날,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다시는 이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길 바란다. 나 하나면 충분하거든. 우리가 다시 친구가 되길 바란다.

시험 세 과목 망치고, 친구한테는 배신당하고, 정말 짜증난다. 누군가에게 화풀이 하고 싶다.

7/x/2005

오늘 아빠, 엄마가 잘 자고 있는 나를 현실로 끌고 왔다. 꿈속을 헤매는 사람을 깨우는 것은 정말이지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이다. 편안히 단잠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 달콤한 꿈에서 깨어나기 싫어한다. 하지만 나는 정말 원하지 않았지만 세상 무엇보다 편안한 침대에게 이별을 고했다.

오늘은 할아버지 댁에 갔다. 할아버지는 혼자 사신다. 할아버지는 하루 온 종일 자식들이 집에 오기만을 기다리신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불효자다.

나는 최선을 다해 한 달에 한 번 할아버지 댁에 가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산책도 하고 말동무도 되어 드린다. 아빠는 매일 매일 할아버지께 전화하시고 항상 똑같이 ‘식사하셨어요?’, ‘전기는 잘 확인 하셨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다. 할아버지가 귀찮아하시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저번에 할아버지가 집을 나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실 할아버지는 귀가 점점 안 들리시지만, 누구보다 더 똑똑하시다. 할아버지는 산시(陝西)에 있는 고향에 가서 며칠 묵고 오시겠다고 하셨지만, 역으로 마중 나간 친척들에게는 할아버지가 시안(西安)에 옛 전우를 만나러 간다고 말하셨단다. 가신 지가 몇 주나 지났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아빠는 미치기 일보 직전으로, 하루 종일 전화기만 붙잡고 시외로 해외로 전화하셨다. 미국에 사시는 삼촌, 고모께서 할아버지 실종 소식을 듣고, 바로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으로 날아오셨다. 아버지는 삼촌, 고모의 걱정을 덜기 위해, 또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일을 내팽개치고 시안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셨다. 어떤 실마리도 없기에 거리를 하나하나 살살이 뒤지기 시작했는데, 정말이지 우연히도 길에서 할아버지를 찾으셨다. 할아버지는 차 한 대를 빌리고 가이드까지 대동해서 며칠 동안 시안을 관광하셨단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가족은 뒤로 넘어갔고, 너무 놀라 입이 썩 벌어졌다.

나이가 더 드시면서 당연히 할아버지의 기억력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다. 며칠 전 나와 사촌 여동생, 남동생이 할아버지 댁을 방문했는데 할아버지는 동생들에게 오로지 ‘신디야, 요즘 학교생활은 어떠니?’, ‘베이징은 재미있니?’ 하시는 것이 아닌가? 정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우리 집에 4명의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 알고 보니 할아버지는 내 이름만 기억하고 계셨다.

오후에 에밀리가 책을 찾아간다는 핑계로, 우리 집에 와서 너무나 당당하게 다 챙겨갔다. 우리 둘은 함께 숙제를 하면서 서로를 훑봤는데, 나중에는 함께 배가 아플 정도로 웃어댔다. 그녀는 어제 나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며, 만약 나의 말로 자신을 웃겨 죽게 만든다면 나는 정말 대단한 용의자이고, 그렇다면 자신의 죽음이 가치 있는 것이라 말했다. 나는 간단히 반박했다. 시체를 태워서 없애면 끝나는데, 어떤 멍청한 범죄자가 시체를 범죄 현장에 두고 가겠냐며, 시체 썩은 냄새

가 나는 것도 그 분위기를 깨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적 환경과 시기만 잘 맞아 떨어지면, 나의 말재간은 공격할 빈틈이 없이 아주 최고봉에 이른다. 에밀리 같은 애들은 당해낼 도리가 없다. 하늘을 우러러 보며, 길게 탄식한다. 어떻게 너처럼 이렇게 사람을 잘 헐뜯을 수 있냐고, 친구로 사귄 것이 실수였다고……. 어쩔 수 없다. 내가 거친 마음을 갖고 있다 했던가, 그녀도 어쩔 수 없이 재수가 없음을 인정했다.

막 아기돼지를 괴롭히고 마음이 후련하다.

7/x/2005

똑똑한 사촌언니의 대학 입학시험 점수가 오늘 발표됐다. 608점으로 베이징4 중 문과 2등이란다. 사라언니, 언니는 나의 인생의 롤모델이에요. 언니가 즐거운 베이징 대학 생활을 하기를 진심으로 바래요! ^_^

정말 부러워 죽겠다.

오늘 저우제룬(周杰倫) 주연의 <이니셜D>를 보고 왔다. 스포츠카의 스피드를 보고 있자니 마음속까지 후련해짐을 느꼈다. 하지만 나와 에밀리는 저우제룬이 원래 웃지 않는지 궁금해졌다. 똑같은 표정 뿐 이었다. 그것은 바로 아무 변화 없는 무표정…….

비가 내린 후 이상하게 모순되는 마음이다.

7/x/2005

시험 성적이 나왔다. 내 성적은 그저 보통 수준. 몇 과목은 망쳤다. 몇 과목은 성적이 좋은데, 또 몇 과목은 짜증난다. 어제 누군가 와서 인간 같지 않은 말을 해댔다. 아이고, 하느님, 두 달 있으면 개학이다. 그러고 나서 우리들은 깊은 생각에 빠졌다.

시험 볼 때 계속 생각했다. 아직도 안 끝나는 거야, 어디서 이렇게 많은 과목과 이렇게 많은 시간이 생기는지, 어떤 과목은 복습도 안 했는데, 왜 시험이 안 끝나는 거야, 결국 시간은 그렇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흘러갔다. 방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개학이 다가오고 있다. 방학 숙제는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마음가짐이 이래서 가장 중요하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객관적인 환경도 아무 필요가 없다.

나는 지금 내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넓은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으로 말이다. 이렇게 하면 인간관계나 무슨 일에서나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정말이다.

7/x/2005

오늘 학부모 회의가 있었다. 친구들이 많이들 혼났겠지?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나는 괜찮은 편이다. 아빠, 엄마가 모두 나에게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부모님께서 내가 일으키는 문제들을 모두 신경 쓰셨다면, 아마 벌써 힘들어 쓰러지셨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잘 지내고 있다.

오늘은 저우제룬의 콘서트가 있는 날이다. 나는 가지 못했다.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슬프다.

7/x/2005

오늘은 여름 방학 전 마지막으로 학교 가는 날이다. 선생님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잔소리를 잘 할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들은 시간이 한참 지나야 저 잔소리를 들을 수 있다. 오해하지는 마! 그렇다고 내가 이별이 아쉬운 것은 아니니까.

점심시간에 엄마가 나를 데리고 친구 집에 놀러 가셨다. 엄마는 하얀색 스커트를 입고 나는 울 블랙으로 입어 흑백의 대비가 선명했다. 다들 모이고 나서야, 다섯 명 중에 내가 가장 어리지만, 키는 가장 크다는 것을 알았다. 시대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쉰쥬 오빠도 몇 년 만에 만났다.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초등학교

교도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그래서 그 때 오빠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지금 오빠의 모습을 비교 못하는 것이 아쉽다. 모두들 내가 많이 변했다고 한다. 하지만 오빠는 하나도 안 변했다고 한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사람의 모습은 변한다.

다시 한 번 쏜줘 오빠의 미국 스탠포드 대학 합격을 축하한다.

아, 즐리다.

7/x/2005

13은 내가 좋아하는 숫자이다.

이유도 없고, 좋아하게 된 원인도 없다.

그냥 좋아하는 것 일뿐……. 마치 십자가를 좋아하는 것처럼.

Cross+ Christain=crosstain.

지금은 좀 이해돼?

7/x/2005

오늘은 무슨 일이지?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

그 애는 아마도 나를 정말이지 철저하게 잊어버렸나 봐.

아니면 나란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것일까?

그렇다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다른 누구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됐다. 혼자서 우울해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얼마나 더 괴롭고 고독하든지 간에 나는 여전히 아무 것도 바꿀 수가 없다.

아! 너는 역시 아무 쓸모가 없구나.

7/x/2005

가족회의 중 잠시 딴 생각을 하다 정신을 차렸다. 하지만 여전히 이별의 슬픔에 잠겨있다. 마음이 무겁다.

지난번에 큰아버지 식구들을 본 것은 미국에서 할머니 장례식 때였다. 그래서 그런지 큰아버지 식구들을 보니 할머니 모습이 나도 모르게 떠올랐다. 두렵다. 언제 누가 돌아가실지……. 인생에서 가장 깊이 간직해야 할 마음은 딱히 그런 것은 아니지만, 비애가 아닐까? 갑자기 내 자신이 너무 보잘 것 없다고 느껴진다.

사라 언니 티베트에 도착했겠죠? 정말 언니의 용기가 너무 부러워요, 어제 새벽 언니가 티베트에 가겠다는 생각을 하자마자, 오후에 언니 엄마랑 출발하셨죠? 짐을 간단히 꾸리고 말이죠. 티베트를 느끼겠다는 강한 신념만 가진 채로…….

티베트는 우리 세대의 눈에 정말이지 신비하고 성스러운 곳이다. 정말이지 부럽다. 티베트, 우리는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움을 동경한다. 하지만 그저 동경일 뿐이다. 자신의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어도 정말 자신의 생각을 실천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하지만 사라언니는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했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존경하고 부러워한다. 언니는 자신의 꿈을 위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많은 고난이 닥쳐도, 실패를 경험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했기에, 언니는 대입시험에서 608점을 받아, 베이징대에 입학한 것이다.

608점, 베이징대 법학과를 가도 충분한 점수였다. 하지만 존경스러운 언니는 범어학과를 선택했다. 이 과는 베이징대에서 가장 이상한 과이다. 대학 입학시험에서 입학허가까지 2명을 초과한 적이 없단다. 최고의 고승들이 한 학생을 가르치는 과란다. 범어, 인도, 불교……. 그녀의 선택은 그녀의 일생을 결정했고 외로움만 있을 뿐이다. 졸업하고 석, 박사 과정을 거쳐 학자가 되기까지 그녀의 일생을 예견할 수 있다. 그러나 사라언니는 자신의 인생을 선택한 그런 종류의 사람이다. 언니의 이상, 동경, 희망, 그녀의 사랑. 이렇게 언니는 베이징대학 범어학과 유일의 신입생이 되었다.

대입 시험을 막 끝내고, 언니와 언니 친구들 6명은 여행단을 조직했다. 각자 몇 백 위안만 갖고 윈난으로 가서, 쿤밍, 따리, 리장, 샹그릴라를 여행했다. 일

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내 친구들은 그런 용기가 없다. 나도 마찬가지이고…….
하하하

그래서 나는 언니를 존경한다. 그리고 언니의 용기, 대범함, 재능을 부러워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한 번도 가지지 못한 것들이다. 어쩌면 나중에도 갖지 못할 그런 것들…….

그래서 나는 부끄럽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내 자신이기를 바란다.

언니를 무한히 존경하면서…….

7/x/2005

Dear Anna and danny,

Thank you for Reading my Blogpage. I 'm so happy to see your E-mail. I think it maybe difficult for all of you to read the articles in Chinese, so I 'll try to write in English sometimes. I can practice both Chinese and English, that ' s good.

I am enjoying my summer vacation, but we have much more homework than normal. Terrible, isn ' t it?

Tomorrow is my birthday. but my teacher doesn ' t care about that. She wants all of us to go somewhere with her. It will be a waste of time because we know it must be boring. Uhhhhhhhh noooooooooo…… But we have to go.

Best wishes!

Cindy

12. 굿바이 달라스

비행기가 밤하늘을 가르며 날아가고, 비행기 날개 아래 보이던 불빛들이 점점 멀어지던 그 때, 정말이지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그 도시가 조그만 별처럼 아득히 멀어지자, 내 마음은 그제야 평온을 되찾았다.

달라스, 이제야 너에게 이별을 고하는구나, 이별을 말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다. 십 년 전 어느 가을날 나는 우연히 달라스의 품에 안겼고, 이별을 고하는 지금은 겨울이 눈앞에 다가왔다. 달라스가 싫어서 떠나는 것이 아님을, 나의 방랑 때문임을 말하고 싶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신의 삶속에도 어찌면 운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번 운회에서 더 큰 행운이 따르기 바란다. 여기까지 쓰다 보니 감회가 새롭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별을 고해야 하고, 또 그들에게 감사의 말도 전해야 한다. 용서할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은 이 오래된 노래가사와 같다.

꽃들은 당신이 어떻게 떠났는지를 알려 주었죠.
대지는 당신 마음 구석구석을 알고 있죠.
많은 인생고락을 겪었고
매번 만남과 웃음은 서로에게 새겨졌죠.
햇빛이 눈부시게 내리쬐는 즐거운 날
우리는 손잡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태양빛이 모든 언어를 비추고
바람이 세상의 이야기를 전해 주네요.
서로 같은 느낌은 우리에게 같은 열망을 주고
서로 같은 기쁨은 우리에게 노래를 선물하네요.

달라스는 미국 서부 영화에 단골로 등장하는 도시로,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었던 장소로 더욱 유명한 곳이다. 비행기 안에서 12월 20일자 <포춘>지를 펼치

자, 그 안에 달라스가 전미 최고경영 도시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달라스는 작년에 1위를 차지한 오스틴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였고, 산호세, 오스틴, 뉴욕, 애틀란타, 시애틀, 라스베이거스, 덴버, 보스턴, 시카고가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내가 달라스에 도착했을 때, 나는 브라이언 캐빈에 매료되었다. 브라이언 캐빈은 존 날리 브라이언이라는 개척자에 의해, 1841년 트리니티 강 근처에 만든 목조 건물로, 달라스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다. 친구들이 찾아올 때면, 나는 꼭 브라운 캐빈과 케네디 기념관으로 그들을 안내한다.

달라스는 미국에서 8번째 큰 도시로, 가까운 포트워스와 함께 달라스-포트워스라고 불린다. 또한 유명한 쌍둥이 도시이자, 텍사스 북부의 중요 도시로, 전체 인구는 200여 만 명이다. 주로 보험·석유·우주항공·하이테크 전자통신 등이 발달하였다. 4,5만 화교들이 상당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다른 해외 지역과 비교해 보면, 달라스 화교 사회는 젊고 그 성격상 복잡하지 않으며 문화 수준이 높아 수십 개가 되는 화교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635번 도로에서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보니, 길도 예전 그대로이고 예전처럼 똑같이 길도 막힌다. 똑같은 바람이 불고 처음 왔을 때 걱정을 어루만져주던 석양빛도 그대로다. 예전처럼 고개를 살며시 들자 친구의 웃는 얼굴이 보인다.

마치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두 그루의 나무처럼, 영원히 떨어져 그 거리를 좁힐 수 없는 듯 친구와 나는 공항 창을 마주한 채 서 있었다.

사실 인생은 이런 것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돌고 돈다. 같은 태양빛과 빗물에 몸을 맞고, 같은 바람을 맞고,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지만 정해져 있는 이 거리는 도저히 좁힐 수 없다.

많은 기억들은 늘 마음속에 자리 잡는데, 나는 그저 미소만 지어 줄 뿐이다.

미소를 빼고 나면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지금 나는 그저 이곳에 서서 아름다운 추억들을 마음속에 되새길 뿐이다. 달라스의 이웃, 형제 친구들이여 안녕,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다.

십 년이란 세월은 짧다고 할 수 없다. 나는 어느덧 중년의 나이로 접어들었다. 동차오(董橋)의 말처럼 중년이란 날이 밝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는 나이이다. 중년은 타이징농(台靜農)의 글자는 질리지 않고, 피카소의 그림은 싫어지는 나이이다.

“난징의 봄 소리 밤물결 소리 들리고, 돛단배 하늘 끝 흰 구름에 흔들린다, 동풍이 불지만 친화이의 버드나무는 아직 푸르지 아니하고, 잔설 강산은 육조의 것이라네(山郭春聲聽夜潮, 片帆天際白雲遙, 東風未綠秦淮柳, 殘雪江山是六朝)”

또한 중년이라는 나이는 잡념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글은 점점 짧아지는 나이이다. ‘방안에 흩어진 몇 권의 책, 반쯤 열린 창가에 차가운 촛불, 서재 안은 차갑고 황량하네(數卷殘書, 半窗寒燭, 冷落荒齋裡)’

중년은 ‘세속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나이이다(未能免俗, 聊復爾耳)’ 그렇다면 나는 이제 이 치열한 싸움터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 돈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아님을 모두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용기를 내서 더욱 의미 있고 즐거운 생활을 선택하고 있는가?

달라스를 떠나기 전 한 친구가 나를 위해 파티를 마련하였다. 그 곳에서 만난 달라스 매버릭스 감독인 돈 벨슨은 내가 피닉스로 이사 간다는 것을 듣고, 웃으면서 그곳에서 가장 좋은 겨울을 맞이할 것이라 하였다. 훈련의 귀재라 불리는 돈 벨슨은 제작년 매버릭스 감독으로 영입된 이후 파죽지세로 단기간 내에, 팀 내 유명한 3J(짐 잭슨, 저멀 매쉬번, 제이슨 키드)를 해체하고, 거기에 매버릭스의 크리스 개틀링, 조지 맥클라우드 같은 중간급 멤버들을 끼워 팔기 형식으로 다른 팀으로 팔아넘겼다. 이런 몇 년간의 커다란 변화를 통해 달라스 매버릭스는

완전히 다른 팀이 되었다.

십 년의 달라스 생활로 나는 미식축구의 흥망과 쇠퇴 그리고 농구의 발전을 보았고, 게다가 달라스 오페라의 화려함과 교향악단의 아름다움까지 음미하게 되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고, 이곳에 처음 왔을 때를 떠올리니, 나는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가난한 유학생이었다.

나는 너무 평범했지만 또 행운도 얻었다. 나는 달라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나는 화교 사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분들과 사랑하는 문학 친구들을 결코 잊을 수 없다. 우리는 바쁘게 지나가면서 만난 사이였지만, 그들이 있었기에 나의 달라스 생활은 더욱 행복했다. 나중에 시간이 얼마가 흘러도, 나는 영원히 서로를 기억할 것이고, 내 생명의 모든 것을 기억할 것이다.

1988년 10월 28일 간소하기 그지없는 짐 두 개를 들고 막연히 보잉 747비행기에서 내린 것이 나의 달라스 생활이 시작이었다. 그 날은 날씨가 너무 화창해서 찬란했던 태양빛은 오래도록 내 가슴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오늘 1999년 12월 16일 나는 대형 화물차에 짐을 가득 싣고 나니, 떠나는 기분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비행기가 1만 피트 상공에 오르자, 눈앞에 너무나도 익숙한 구름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맑은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니 추억들이 떠오른다. 사랑하는 달라스여, 굿바이! 이 도시 안에 내가 아는 모든 친구들, 그리고 나의 독자들도 안녕! 내 머릿속에 불현듯 오래된 노래가사가 떠오른다.

당신과 이별함에
마음은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과 다시 만날 것을 바래요.
누구도 막을 수 없죠.
시간의 흐름을
잘 가라고 말해줘요.
나를 안아주고, 축복해 주세요.
우리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내일이 찾아올 것이고
이별은 아마 다시 만나기 위함임을……



13. 연꽃

베이징대 재학시절, 나는 수업을 빠지고 종종 학교 서쪽에 있는 원명원으로 연꽃을 보러갔다. 한번 연꽃 감상에 빠지면 하루 종일 그 곳에서 연꽃 매력에 흠뻑 취해, 석양이 붉게 온 호수를 뒤덮으면 그제야 아쉬운 발걸음을 뒤로 한 채 돌아갔다.

“보아 온 수 많은 꽃들 가운데 연꽃처럼 뛰어난 자태를 가진 것은 없다(覽百卉之英茂, 無斯花之獨靈)”

원명원 안의 연꽃은 청아함과 수려함, 순결함과 고결함으로 사람들에게 사랑 받는다. 연꽃은 여러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데, 택지(澤芝), 함담(菡萏), 우화(藕花), 유월춘(六月春)이 그 예이다. 또한 ‘정객(淨客)’, ‘정우(淨友)’라고도 불린다. 연꽃을 ‘진흙탕에서 꽃을 피우나 더럽지 않고, 맑은 물결에 씻기지만 요사스럽지 않다’라고 표현하며, 또한 연꽃을 ‘꽃 중의 군자’라 부른다.

연꽃은 ‘붉은 빛으로 태양을 미혹하고, 푸른 빛으로 물결을 덮는다(紅衣迷日色, 翠蓋瀉波光)’, 아름답고 순결하며 고고하다. 마치 ‘벽파선자(碧波仙子, 푸른 물결의 아름다운 여인)’와 ‘취개가인(翠蓋佳人, 우산을 쓰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 같다.

병체련(並蒂蓮)은 순결한 사랑은 상징하고, 천판련(千瓣蓮)은 살기 좋은 세상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연등을 감상하고, 연꽃 춤을 추며, 연가(蓮歌)를 부른다. 또한 매년 음력 6월 24일을 연꽃의 날로 정하였다.

고대 문인들은 연꽃을 극찬하며, 끊임없이 시를 읊었다. 양만리(楊萬里)의 연시(蓮詩)는 좋은 시구로 많은 사람들에게 애송되고 있다.

“역시 서호는 유월 중에는 풍광이 다른 계절과 다르다. 하늘과 닿은 연잎은 한

없이 푸르고 햇빛에 빛난 연꽃은 유달리 붉어라(畢竟西湖六月中, 風光不與四時同. 接天蓮葉無窮碧, 映日荷花別樣紅.)”

연꽃은 중국 전통 명화로,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 1억 년 전 지층에서 연꽃의 화분(花粉)이 발견되었다. 연꽃은 중국의 역사에서 이미 2500년 전부터 재배되었다.

오왕 부차(吳王夫差)가 궁궐을 떠나 타이후(太湖)에 머물면서, 서시(西施)를 위해 연화지 만들고 연꽃 감상을 하게 하였다. 기원전 11세기 연근은 이미 고대인이 먹는 40종의 채소 중 하나였다. 사람들은 연꽃을 심고 감상하며 음식으로 이용하였다. 현재 연꽃의 품종은 이미 200여 종 이상으로, 색깔 또한 흰색, 분홍색, 심홍색, 연녹색 등으로 다양하고, 연꽃잎은 단판(單瓣), 중판(重瓣), 중대(重台), 천판(千瓣)으로 구별된다. 또한 용도에 따라 우련(藕蓮), 자련(子蓮), 관상련(觀賞蓮) 세 종류로 나뉜다. 관상련(觀賞蓮)중 천판련(千瓣蓮)은 연꽃의 으뜸으로 꼽힌다. 그 외로 각자의 매력을 갖고 있는 병체련(並蒂蓮), 품자련(品字蓮), 사면련(四面蓮), 오자련(五子蓮), 수구련(綉球蓮) 등이 있다. 연꽃의 소형 품종인 완련(碗蓮)은 꽃의 평균 직경이 12센티미터가 채 되지 않아, 작고 감쪽하여 특히 사랑스럽다.

원명원의 원명호에 연꽃이 활짝 피면, 마치 맑고 깨끗한 연꽃 세계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든다. 여름 날 뜨거운 태양 아래 연꽃을 보고 있다면, 그 아름다움에 취해 돌아가야 함을 잊어버린다.

14. 구성하오 교수 편안히 가시오

Love Eternal

Time is too slow for those who wait,
Too swift for those who fear,
Too long for those who grieve,
Too short for those who rejoice,
But to those who love, time is eternity.

—Henry Van Dyke(1852~1933)

누군가는 친구에 대한 추억은 짙은 회색으로 채색되어 있다고 말한다.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 알 수 없는 고통이 가슴 깊은 곳과 부딪혀, 지난 기억의 단편들이 눈앞에 아련히 펼쳐진다. 이 때, 회색빛 추억은 다시 검은색으로 변하였다가, 아득히 멀어진다.

오랫동안, 나는 다시는 구성하오 교수를 만날 수 없는 현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올해 오월에 그와 함께 지냈고, 그가 이 세상을 떠난 지 백일이 채 되지 않았으며, 그는 나와 책 몇 권과 어떤 일들에 대해 구상 중 이었는데……. 이 모든 것이 아주 오래된 일 같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왔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 화창한 어느 날,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구성하오 교수 집 문을 두드리리라, 그리고 화차오대학 안의 구형의 성품을 닮은 조용하고 아담한 집에서 또 한 번 경청하리라. 화차오대학 중문과에 대한 미래와 중국 문학에 대한 그의 구상을……. 나는 구 교수와 내가 매우 오랜 시간 알고 지냈다고 생각했고, 구 교수 역시 나에게 관한 많은 글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나와 구 교수는 제작년 북미 중국 문학 세미나 자리에서야 첫 만남을 가졌다. 어쩌면 처음부터 서로 뜻이 맞았던 우리의 인연은 이 세상의 수많은 인연들처럼 쉽게 설명할 수 없다.

갑자기 닥친 병마에 그는 생각지도 않게 쓰러졌고, 황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죽음의 손아귀에서 그의 목숨을 구할 수 없었다. 구 교수는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아쉬움을 남긴 채 떠났다. 그는 이제 막 발전하기 시작한 화차오대학 중문과를 위해 더 이상 힘쓸 수 없고, 또한 발걸음을 막 내딛은 북미 중국문학 연구를 위해 책을 집필할 수 없으며, 딸의 대학 졸업식에도 가지 못한 채……. 그렇게 말 없이 떠나갔다.

가만히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의 잘생긴 얼굴과 밝은 미소가 어제 일처럼 아직도 선명하게 머릿속에 그려진다. 그는 감정을 확실히 표현하는 사람으로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으며, 매력적인 미소를 갖고 있었다. 그는 생활과 문학, 시사에 이르기까지 뚜렷한 자신의 견해를 갖고 있었다. 그런 그의 품성으로 보면 그는 이렇게 허망하게 갈 사람이 아니었다. 오래 오래 살아야 할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 버렸다.

그는 줄곧 매우 건강했다. 작년 미국에 갔을 때만 해도, 미국 동부에서 서부까지 쉬지 않고 대학들을 방문하고 강연도 하였다. 하지만 작년 말 화차오대학에서 개최한 제10회 중문학 세미나 준비로 피로가 누적되어 몹시 지쳐 있었고, 거기다 검사 결과 식도암 말기라는 판정까지 받았다. 그는 식도암 치료로 유명한 정저우 암센터에서 3개월간 화학 치료를 받고, 팬찮아졌다는 생각에 학교로 돌아왔다. 그와 친한 위리화, 우링야오, 송샤오량 같은 북미 작가들이 모두 그의 쾌차를 바라며 전화를 걸었다. 내가 올해 5월 중국으로 돌아와서 샤먼대학에서 강의할 때, 그는 친절하게 화차오대학까지 안내해 주었고, 그 때만 해도 그의 건강상태가 완전히 회복된 것처럼 보였다. 그래도 나는 그에게 수업 준비에 힘쓰지 말고 건강에 유의할 것을 수차례 당부했다. 하지만 그는 화차오대학 문화예술과 주임 교수와 중국문학 교육 연구소 소장 등 많은 직무를 담당하고 있던 터라, 산더미 같이 쌓인 일거리에 그는 편안히 건강을 돌볼 수가 없었다. 미국으로 돌아간 이후 나는 구 교수와 한동안 연락하지 못했다. 그저 그의 건강 상태를 걱정할 뿐이었다. 그러던 중 6월 중순 구성하오 교수 이름이 적힌 메일 한통을 받았는데, 그 메일을 열어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 편지는 다름 아닌 구성하오 교수의 딸인 마오마오가 보내 온 것으로, 아버지의 식도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어, 병원으로 옮긴지 이틀째 되는 6월 17일 세상을 떠났다고 적혀 있

었다. 사랑하는 친구이자, 진정한 학자가 결국 이 세상을 떠나버렸다.

나는 매우 오랜 시간 시를 쓰지 않았지만, 그 날 밤만은 하얀 종이 위에 아래와 같은 글을 써 내려갔다.

아득한 시공에
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풀어 놓는다.
하지만 같은 꿈속에
모든 환상을 한 숨에 날려 보낸다.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은
눈빛이 허공에 떨어질 때
종소리가
아직도 낮게 울려 퍼지는 것.

내가 고국을 오래 떠나있어서인지, 아니면 나의 인간관계가 좁아서인지, 국내외로 만나 본 학생과 학자들 가운데 구성하오 교수 같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전공 분야에 너무나도 열정적이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또한 자신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자신의 일을 생명처럼 여겨 잠시도 일에서 손을 놓지 않았다.

경박한 세대 속에서, 중국 본토 문단에 편향적인 문인들이 등장했다. 도도하게 생활을 묘사하고, 교만한 자세로 도리를 대하며, 도덕적 비방으로 창작을 대신했다. 그들의 문장의 날카로움은 각박하고, 용기는 무모하며, 대범함은 조잡함과 뒤섞이고, 신기함은 황당함을 뛰어넘었다. 하지만 구성하오 교수는 그들과 달랐다. 그의 가장 좋은 점은 사람 됨됨이이다. 그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의 아버지는 큰 공장의 책임자로 그는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아버지가 상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자, 힘을 잃어 집안 살림이 힘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오늘날 이런 위치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각고의 노력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은 환경에 처했다면, 사치스럽고 안일한 생활을 했을 것이

며, 교만 방자했을 것이다. 혹은 속을 알 수 없거나, 냉정한 사람으로 변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다.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 마음은 다듬어지지 않은 옥처럼 맑고 깨끗했다. 그는 진실하고, 온화하며, 쾌활하고, 솔직하다. 당신과 이야기를 한다면 모든 것을 터놓고 말할 것이다. 그가 간혹 실패하거나 자신의 어떤 단점을 발견하더라도, 당신에게 숨김없이 털어 놓을 것이다. 그는 ‘진실’이라는 두 글자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그의 이런 성격은 반은 타고 났고, 반은 그의 부단한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아직도 화차오대학을 떠나던 그 날이 생각난다. 구성하오 교수는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듯, 다시 방문하기를 여러 차례 부탁했다. 그는 사오권 세미나를 개최해 <사오권 문학 평론>을 출판 할 계획도 갖고 있었다. 그의 진심이 나를 감동시켰다. 나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헤어짐이 아쉬워,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오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그 만남이 구 교수와 마지막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영원히 다시 만날 그 날은 오지 않았다. ‘그 분은 황학(黃鶴, 전설 속의 누런 새)을 타고 떠나갔다(先生已乘黃鶴去)’ 하지만 그 황학이 가지고 가지 못한 것들은 이 세상과 내 마음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나는 예배당에서 그를 위해 기도하며, 두 손 모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구 교수 당신은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난다고 말했지만, 나는 세월이 떨어지는 나뭇잎 같다고 생각되요. 구 교수, 그곳에서 떨어져서 노랗게 말라버린 나뭇잎을 주웠소? 그리고 그 낙엽 위에 글귀를 적어, 이곳에 있는 나에게 보냈소? 나는 그것을 받았소, 그리고 그것을 기억 속에 담아두었소. 마음 깊은 곳에 묻어 두었소. 이청조(李清照)의 <행향자-칠석>을 기억하오? ‘풀밭 귀뚜라미 나직이 우는 소리 에, 가지 끝 오동잎 놀라 떨어지네. 칠석의 모습에, 인간 세상 하늘 세상 가을이 깊어가네, 뜬 구름, 밝은 달 꾸며진 천궁은, 어째서 굳게 문이 닫혀 있는가? 하늘로 향하는 뗏목은 흘러가는데, 당신의 모습은 다시 보기 힘드네(草際鳴蛩, 驚落梧桐. 正人間, 天上愁, 雲階月地, 關鎖千重. 縱浮槎來, 浮槎去, 不相逢.)’ 그 곳에서 당신이 시를 읊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오랫동안 시를 읽지 않았소. 그저

이 시구가 떠오르는구려. ‘사물은 그대로인데 사람은 다르구나. 모든 일이 허사로다. 말하려 해도 눈물부터 흐르네(物是人非事事休, 欲語淚先流)’”

절실히 친구를 그리워하는 것, 이런 애수에 젖은 감상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느껴진다. 마치 한 송이 야생초가 꽃집이 있지 않는 것처럼……. 세련된 칵테일 바도 없고, 장면 뒤에 흐르는 배경음악도 없고, 시를 읊조리는 이도 없다.

어느 한 시기와 정서에서, 나는 남몰래 오래된 추억의 단편들을 꺼내본다. 실제 가슴 속에 존재하는 모습은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실화이다. 우리들은 원래 순수하며 마음 속 추억들이 기억의 화면에 나타난다. 이는 솔직하지만 어쩔 수 없다. 깨진 구슬, 조용히 흐르는 해자, 한들거리는 강아지풀, 푸른 풀잎, 연 자색 갈대 이삭, 그리고 뜨거운 여름, 참새 떼와 이를 막는 허수아비.

어느 날 구 교수는 떠났다. 나는 갑자기 주위 사람들이 말이 없음을 느꼈다. 이 시대에 그리움은 정신적 노마드의 양식이다. 사람들은 유행가 가사를 들으면 울고 싶어지고, 실연의 아픔을 떠올리며 낭만을 느끼고, 노래를 부른 가수에게 빠져든다. 또한 마음이 나약해지고, 걱정적으로 변하며, 종교의 구원을 바라고, 자연으로의 회귀를 갈망한다. 심지어 말라 떨어지는 낙엽에도 눈물 흘린다. 왜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한 삶의 태도를 지켜나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친구를 향한 그리움…….

구성하오 교수가 떠났다. 사랑하는 친구가 그렇게 또 떠나갔다. 나는 그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지만, 그가 이 세상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 어렵고 아쉬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 내 마음에 세월이 빠르게 물처럼 흘러 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공자께서 냇가에서 말씀하시길 지나가는 모든 것은 흐르는 물과 같구나. 밤낮없이 멈추지 않는구나(子在川上曰, 逝者如斯夫, 不舍晝夜.)’

인생에는 많은 유감스런 일이 있지만, 이를 귀결하면 대략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는 ‘안 되는 줄 알면서 끝까지 하는 것(知其不可為而為)’으로 이는 비장함의 유감이고, 둘째는 ‘되는 줄 알면서 하지 않는 것(知其可為而不為)’으로 이는 나태한 유감이다. 특히 후자는 더욱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구성하오 교수가 다방면으로 노력한 덕에, 마침내 중국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문학과 관련한 ISBN을 따냈지만, 그는 점점 죽음의 문턱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편집의 전 과정에 참여하고, 한 줄기 푸른빛으로 표현히 이 세상을 떠난 구 교수, 그를 떠올리니 그의 문학에 대한 걱정과 화차오대 중문과에 대한 그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 이는 ‘모든 것을 만들어 주지만 결코 스스로 이루었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이룬 다음에는 스스로를 주인이라 여기지 아니하는 것(生而不有,爲而不恃)’과 같은 무한한 사랑이다.

하늘나라가 편안한지 모르겠소. 구 교수 마음은 편하시오? 아니면 인간 세상에 남겨둔 즐거움 안의 우울함, 평온함 속의 번뇌, 이런 것에 대한 미련이 남으시오? 생명 그 자체는 정수(定數)와 같다. 우리가 아직 어떤 길을 선택하지 않아도, 길은 이미 우리를 선택하였다. 인간 세상에 온 이후, 우리의 유일한 사명은 경건하게 한 순간, 한 순간 발을 디디어 나가는 것이다. 어쩌면 하늘나라로 가는 길은 아주 멀겠지만, 우리는 그 길이 어떤지 예측할 수 없다. 마치 쪽 이어져 있는 산봉우리처럼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 하지만 사람보다 높은 산은 없고, 걸음보다 더 긴 여정은 없다. 세월의 풍파가 우리의 꿈을 좌절시키고, 아무리 고민해도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는 가득 하지만, 한 걸음 한걸음 나아가면, 이 모든 것이 나의 이야기이며, 벗에 대한 기억임을 알 수 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나는 그저 구 교수에게 이 말을 하고 싶다. 구 교수, 편안히 가시오.

-구성하오(顧聖皓) : 1949년 2월 상하이 출생. 국립 화차오대학 중국 문학 예술과 주임 교수, 중국 문학 교육 연구소 소장. 저작으로 <중국 현대 작가론>, <20세기 중국 문학>, <중국 현대 문학 작품 감상>, <주자청 산문의 작품 예술>, <북미 중문 창작의 역사와 현황> 등이 있다. 2000년 6월 질병으로, 향년 51세에 세상을 떠남.

15. 가을 잎

벌써 달라스에서 열 번째로 맞이하는 가을이다. 아직 여름날의 무더움이 채 가지지 않은 것 같은데, 가을 서리가 소리 없이 푸른 나뭇잎을 층층이 물들인다. 빨간 색으로, 노란 색으로, 붉은 갈색으로, 멀리서 바라보면 녹색 숲이 하룻밤 새 짙은 가을 색에 흠뻑 빠져, 알록달록 변해 버린 나뭇잎은 가을의 화려함을 보여주고 있다.

가을의 청량한 새벽과 선선한 저녁 무렵이면 온 세상에 노을이 깊게 드리운다. 태양은 파사로운 손길로 숲을 어루만지고, 나뭇잎은 마치 어머니 품속의 어린아이 마냥 몸놀림이 가볍다. 그저 나뭇잎 초췌한 주름의 끝자락에 약간의 피로만이 남았을 뿐이다. 마치 일생의 모든 힘을 다 소진하고, 싸늘한 날로 다가가는 것처럼, 인생의 종점으로 다가가고 있다.

만약 이 때, 약한 바람이라도 잠깐 스치면, 한없이 약한 나뭇잎은 사랑하는 어머니 품에서 힘없이 떨어져, 마치 봄날에 날리는 꽃잎처럼 가을바람에 흩날린다. 황금색 태양빛이 이 오색찬란한 ‘꽃’을 더욱 눈부시게 한다. 살랑살랑 말 없는 낙엽은 공중을 표류하며 생명의 순환을 노래한다.

마침내 그들이 공중 여행을 마치고, 기꺼이 대지의 품에 안겨, 자신의 어머니인 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평안하게 마지막 안식을 찾는다.

가을이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 더 이상 나뭇가지에 나뭇잎은 볼 수 없다. 그저 풍성한 과실만이 사람들에게 수확의 기쁨을 안겨주고 당연한 듯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 하지만 나무 아래 있던 떨어져 있던, 초췌한 나뭇잎들은 더 이상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찾아볼 수 없다.

한 차례 비가 지나 간 가을 날 오후, 나는 잔디가 무성히 자란 언덕길을 지나 갔다. 그 곳엔 이름 모를 빨간 열매가 열린 나무 한 그루가 홀로 서 있었다. 나

는 대수롭지 않게 그저 지나가는 눈길로 나무를 쳐다보았지만, 가을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모습에 나는 눈을 땔 수가 없었다. 곧은 나무기둥은 열매는 풍성하지만, 나뭇잎은 시들시들한 나뭇가지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 나무는 초원이라는 큰 화병 안에 꽂혀 있는 마른 꽃 같았다. 하지만 이 나무에서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곳은 바로 나무 아래, 황금색 하늘의 노을 빛 같은 그 낙엽들이었다. 그 낙엽들은 나무 아래 평편하고 두텁게 쌓여 마치 부채꼴처럼 나무뿌리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 순간 가을은 내 뇌리에 깊이 박혀 다시는 잊지 못할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

가을은 나뭇잎의 이야기를 풀어 놓는다. 가을 잎은 생명의 또 다른 모습이다. 그들은 봄날의 태양빛으로 찾아 왔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했으며, 무더운 여름날 과일을 여물게 하기 위해 영양분을 공급했고, 수확의 계절이 되자 미련 없이 떠났다. 겨울 날 새하얀 눈 속에서, 그들이 추위에 맞서 나무뿌리를 덮어주는 것을 아는 이가 있을까? 생명이 다시 피어나는 계절이 찾아오면, 나는 새로 돌아나는 새싹들 속에서 그들이 있음을 확신한다.

나는 가을 잎을 좋아한다. 그들의 소박함을, 욕심이 없음을, 그들의 말 없는 노력과 보답을 바라지 않는 그 순수한 마음을 좋아한다. 또한 그들이 부럽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상에서 사람은 한 번 왔다가 갈 뿐이지만, 나뭇잎은 매년 생명을 피워 녹음을 가져다준다. 단지 나뭇잎 그들만 모를 뿐…….

16. 미명호에 대한 단상

연말에 집안일로 귀국하게 되었다. 이미 영관(校官, 군대 계급 중 하나)을 지낸 친구에게 이끌려 모교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는 나에게 강의를 부탁했다. 무슨 강의를 하냐는 물음에, 친구는 인생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고 했다.

커다란 강의실을 가득 메우고 있는 열의에 찬 눈빛들을 마주하자,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미명호(未名湖)를 떠난 지 벌써 스무 번이나 넘게 해가 바뀌었다. 세월이라는 조각칼이 내 얼굴과 마음에 하나씩 하나씩 깊은 주름을 새겨 넣었지만, 베이징대 안의 미명호는 여전히 그 젊음을 잃지 않았다. 그 옛날 우리는 젊음이 끊어 넘치고 무서울 것이 없었다. 유치한 사랑 놀음조차도, 호숫가의 풀들에 달려있는 이슬방울과 호수 물결에 스며들었다. 모든 젊음의 꿈이 따뜻한 봄바람 안에 하늘거리는 버드나무가 되었고 수많은 새들이 지저귀어 되었다.

처음 이 호수와 만나던 날, 나는 호수 주변을 돌고 또 돌아,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걸음을 멈추었다. 미명호, 나는 그녀를 처음 봤을 때, 아 니 정확히 말하자면, 나의 온몸으로 처음 그녀를 느꼈을 때, 어둠 속에서 나는 알았다. 그녀는 이미 나의 마음 속 깊은 외침에 대답하였음을. 그래서 나는 안다. 그녀를 만나러 달려가는 길에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용감하게 헤쳐 나가리라는 것을.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도, 옷이 다 헤져도, 먼지를 뒤덮어 써도, 나는 그녀를 만나러 달려갔다.

베이징대가 홍루(紅樓)에서 연원(燕園)으로 이전한 다음부터, 미명호는 베이징대의 상징이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 호수를 만들 때, 호수를 만들 능력은 있었지만, 이에 어울리는 이름을 지을 능력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녀는 미명(이름이 없다)이다. 미명호의 수려함이 베이징대를 아름답게 하는지, 아니면 베이징대의 정신이 미명호에게 영혼을 주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베이징대와

미명호는 하나 되어, 베이징대 사람들 마음 속 신앙이 되었다.

이십여 년 전, 나는 수업을 마치면 이곳을 자주 산책하곤 했다. 석양이 질 무렵이면 하느님은 특히 이 푸른 호수를 사랑하시는지, 남은 석양빛을 호수 위에 모두 흩뿌려 놓으신다. 호수는 넘실대며 천만 조각의 물의 거울이 되어 찬란한 빛을 반사한다. 이 때, 미명호의 금빛 찬란한 아름다움에 온화함과 황홀함이 가득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어제일 같다. 흘러감이 이와 같음을!

이십여 년이 지난 가을, 세월의 나이테를 밟아, 나는 다시 그녀의 곁으로 돌아왔다. 예전과 같은 길에서, 가을바람에 유유히 흐르는 호수를 바라보며, 그녀와의 추억을 떠올린다. 이름 없는 나무 아래 서서, 때 묻지 않았던 첫사랑을 그리워한다. 호수는 옛 모습 그대로이고, 호수 빛도 그대로이다. 감탄하며 미명호의 밀려오는 물결을 어루만졌다. 미명호의 반짝이는 물결은 맑고 깨끗한 유리알 같다. 마치 젊은 날 깊고 맑은 눈동자처럼…….

1. 노원에서 연원까지

미명호는 연인들의 호수이다. 베이징대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이를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달빛 아래 은빛으로 반짝이던 호수를 기억하는가? 저녁 바람에 하늘거리던 버드나무를? 그리고 호숫가에 흐드러진 나무들과, 폭죽처럼 주렁주렁 달려있던 그 빨간 열매를 기억하는가? 그리고…….

나는 내 마음속에 이처럼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곳들이 또 있을지 모르겠다. 앞으로 내 인생에서 매번 여행은 나는 그녀와의 이별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녀와 떨어져 있어도 나는 항상 그녀를 떠올릴 것이다. 조용한 그녀를, 아침 햇살에 반짝이던 그녀를, 햇별이 가득 내리쬐던 그녀를, 저녁노을 속의 그녀를, 별빛이 어루만지던 그녀를……. 봄이면 생동감으로 넘쳐나고, 여름이면 버드나무가

수면을 간지럽히고, 가을이면 호숫가에 알 수 없는 풀들의 노란 잎사귀, 겨울이면 소리 내며 흔들거리는 나뭇가지와 눈과 얼음으로 뚱뚱 얼어버린 그녀를 생각할 것이다. 그녀는 내 마음 속에서 아득한 안개 같은 존재이다. 끊어질듯 이어질듯 아득한 먼 옛날부터 들려오던 아련한 노래가사이고, 글이 없는 시이며, 오랫동안 갈구해온 희망이고, 고요한 외침이며, 묵묵하고 심오한 산수화이다.

하늘이 정한 운명이었을까? 아니면 절묘한 우연이었을까? 나의 중·고등학교 시절과 대학교 때 이야기를 하면, 그때마다 사람들은 대체로 그럴 리가 있냐며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내가 졸업한 ‘루허중학’은 원래는 1867년 세워진 ‘바징선학원’이다. 미국 기독교 공리회에 의해 세워진 이후, ‘루허서원’로 이름을 바꾸고, 1901년 다시 ‘세허서원’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1917년 대학부와 베이징 웨이원 대학이 통합되어 연징대학이 되었다. 그 학교 안의 중학부가 원주소지에 남아 ‘루허중학’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오늘날 연원의 베이징대학은 바로 연징대와 사탄의 옛 베이징대가 통합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루허중학을 가 본 사람들에게 학교에서 가장 인상 깊은 곳을 물으면 분명 학교 교정을 꼽을 것이다. 루허중학 사람들은 이곳을 친근하게 노원(潞園)이라고 부른다. 노원은 첫째 큰 학교 면적으로 유명하다. 그 면적이 약 300여 무(畝) 정도이다. 둘째 소박하고 고풍스러운 매력으로 유명하다. 아직도 20세기 초 건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 노원 전체로 통하는 길은 두 개가 있고, 그 중 동서로 나 있는 임음용로는, 길이가 300여 미터에 달하며, 길 양쪽으로 백 년 이상 된 회나무가 즐비해 있다. 이 길을 걷다보면 아름다운 풍경에 마음이 평온해진다. 고전적 양식의 인민루(1902년), 홍루(1903년) 및 잔디밭, 꽃밭, 기념비가 모두 이 길로 연결되어 있고, 로우루(1935년), 문씨루(1922년)가 서로 마주하고 서있다.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캠퍼스의 울창한 나무, 지면을 뒤덮은 이름 모를 꽃과 푸른 잔디, 기념비, 정자, 아름다운 호수와 산을 만나게 된다.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노원은 중국에서도 보기 드문 매우 특색 있는 중·고등학교 교정의 모습을 보여준다. 노원은 깊은 역사 문화적 저변과 현대적인 학교 분위기로 사람들을 매

료시킨다.

루허중학의 졸업생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공상희(孔祥熙)이다. 공자의 75대 후손인 그는 중화민국의 공상·실업·재정 장관을 역임하였고, 행정원원장등 요직에 있었다. 장군으로는 타이완의 우웨이(烏鉞 공군 사령관), 중국 본토의 장진(張珍 대군구사령)과 자용성(賈永生 공군 부참모장)이 있고, 유명한 교수로는 황쿤(黃昆 과학자), 허우런즈(侯仁之 베이징대 교수)가 있으며, 그리고 서부 가곡왕 왕뤄빈(王洛賓), 향토작가 류사오탕(劉紹棠), 영화배우 리런탕(李仁堂)이 모두 루허중학 졸업생이다. 이런 빛나는 이름들은 루허중학의 자랑이자 또한 심리적 부담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루허중학 시절 이런 부담감은 계속 나를 따라다녔고, 이렇게 나는 잊기 힘든 소년 시절을 보냈다.

우리는 주로 학교 동문을 통해 노원으로 들어와 임음용루를 따라 서쪽으로 갔다. 문을 들어서면 바로 대운동장이다. 운동장에는 규격에 딱 맞는 육상 경기장과 농구장 등이 있고, 지금 바로 옆에 세워진 로우 체육관은 루허중학 동문 이푸언(衣復恩)의 기부로 지어졌다. 운동장을 지나면, 덕진산과 박당정 그리고 협화호를 볼 수 있다. 그 호수 정자에서 나는 소년 시절을 보냈다. 지금 이곳에 자리하고 보니, 세월은 많이 흘렀음을 느끼지만, 그런데 이점이 바로 노원이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는 매력을 갖는 이유일 것이다.

백년 간 노원은 여러 차례 모습을 바꾸었다. 어느 나이 든 교우의 기억으로는 노원에는 원래 담장이 없었다고 한다. 철망이 주위를 둘러싸긴 했지만 밖을 바라보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안과 밖이 끝없이 이어지면서 매우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었다고 한다. 자신이 수업을 받던 강의실은 홍루 2층에 있었는데 수업시간에 종종 남쪽을 바라보면 시골집들과 들판이 한 눈에 들어왔고, 철길을 따라 지나가는 짐꾼들과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청명산하도(淸明山河圖)’를 보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했다고 한다. 1935년에 출판에 학교간행물 <협화호>에는 이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다.

협화호, 이는 한 개의 큰 호수, 세 개의 작은 호수의 총칭이다. 서에서 동으로, 북으로 돌아서 오면, 하나하나가 모두 아름답다. 다리가 연결되어 갈 수 있고, 동북호수는 얇고 길게 나 있는데, 물이 맑아 호수 밑까지 훤히 보인다. 여름 날 녹음이 짙고, 이곳의 물새 소리가 멀리 서호의 물새 소리와 서로 어우러진다. 다리 남쪽에는 하얀 연꽃을 심어 여름이면 연꽃이 활짝 핀다. 호숫가를 산책할 때 옷깃에 맑은 향이 스며들고, 비 내리는 밤에는 물결 소리가 들린다. 큰 호수는 여름에는 수영장이 되었다가, 겨울이면 스케이트장이 되어 남자 아이들이 경기를 한다. 호숫가를 산책할 때 버드나무 그림자가 어깨에 드리워지면 더욱 정취가 있다.

루허에는 일곱 개의 다리가 있다. 교문에 근접한 다리는 평탄해서 잘 보이지 않는다. 박당정 옆 팔방로 북쪽 두 개의 다리는 모두 아치형으로 벽돌로 쌓은 윗부분은 웅장하면서 정교하고, 동양적인 고풍스러움이 가득해 서양인들의 사랑을 받는다. 또 세 개의 판교가 있다. 소남문 밖에 하나가 있고, 운동장 교문 사이에, 얇은 판이 세 개 놓여있는 봉요교(蜂腰橋)는 그림에서만 볼 수 있어, 마치 꿈 속에서 보는 것 같아, 인간 세상의 것이 아닌 것 같다.

이런 구불구불한 오솔길과 같은 편안한 감정은 베이징대로 이어졌고, 미명호의 연원까지도 이어졌다.

연원을 이야기 하다보면, 우리는 연징대학 초대 총장인 존 스튜어트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가 작원(刁園)을 연징대 위치로 선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아름다운 베이징대학은 존재할 수 없었다. 많은 중국 사람들의 기억 속에 존 스튜어트는 그저 미국 정치인에 불과하지만, 그는 ‘연원’, ‘미명호’와 같은 우리 귀에 친숙한 단어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중국에 아주 특별한 인연을 가진 이 미국인의 삶을 보면, 1868년 존 스튜어트의 아버지는 미국 기독교 남장로회에서 중국으로 첫 번째로 파견한 선교사 중 한 분이셨다. 1876년 항주에서 존 스튜어트가 태어나고, 그는 11세에 미국으로 귀국하였다. 1904년 28세의 존 스튜어트는, 그의 아버지처럼 막 결혼한 부인을 데리고, 항주로 와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였다. 존 스튜어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연징대학 건설부터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십여 차례나 미국으로 건너가 기부금을 모았고, 옹정대 건설을 위해 많은 경제적 원조를 아끼지 않았으며, 새로운 학교 부지를 베이징 서쪽 외곽지역의 작원으로 정하였다.

작원은 명 말기 베이징 서쪽의 유명한 정원 중 하나로 1612년에 건설되었다. 이 정원의 주인은 미만종(米萬鍾 1570~1631년)으로, 그는 박학다식하고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 시문에서 당시 문단을 주름잡았을 뿐 아니라, 석각·거문고·비파·전례·장기·바둑·회화 및 조림 예술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였다. 당시 그는 동기창(董其昌)과 함께 명말 뛰어난 예술가로 손꼽힌다. 그가 일생에서 가장 좋아한 것은 자연이었다. 작원을 지을 때, 그는 풍부한 수원과 곳곳에 있는 여러 호수를 이용했다. 이로써 정원의 모든 풍경들이 호수가 있어 그 아름다움을 더욱 뽐냈다. 그래서 ‘작원’이라 이름 지었는데 이는 ‘맑은 물은 한 국자에서 시작된다.’라는 의미이다. 명대 시인 원중도(袁中道)는 작원에 대해 ‘문으로 들어서니 물만 보이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 마치 배안에 들어간 것 같구나(到門唯見水, 入室盡疑舟)’라고 묘사하고 있다.

<연도유람지>의 기록에 따르면, 작원은 면적이 100무(畝)로 북쪽을 향해 문이 나 있고, 문액에 풍연리(風煙里)라고 쓰여 있다. 문 안으로 들어오면, 남쪽으로 연못이 보이고, 그 위에 다리가 놓여 있다. 다리가 높이 놓여 있어, 영운(纓雲)이라 불린다. 다리 아래로 보면 벽이 하나 보이는데, 상감기법으로 작빈(雀濱)이라는 두 글자가 쓰여 있는 거석을 볼 수 있다. 북쪽으로 몸을 돌리면, 문수피(文水陂)라 불리는 큰 연못이 있다. 연못을 지나면 정방(定舫)이라 불리는 서재가 있다. 서쪽은 높은 언덕으로, 송풍수월(松風水月)이라고 불린다. 언덕 끝까지 오르면 구불구불한 다리가 보이는데, 그 다리 북쪽에 작원의 유명한 작해당(刁海堂)이 있다. 작해당 앞에는 정원이 있고, 기이한 암석이 자리 잡고 있다. 사면이 연못으로 둘러싸여 있고, 연못에는 백련이 만발하여 그 맑은 향기로 사람들을 현혹한다.

미만종은 <작원수계도>를 직접 그렸다. 가는 붓으로 작원 안의 풍경을 사실적

으로 묘사하였다. 이 그림을 통해, 우리는 작원의 당시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이 그림은 베이징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림의 배치와 <연도유람지>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만, 그저 그림이 더욱 생동감 넘칠 뿐이다.

청조 초기, 작원의 풍수적 지리가 좋아 청 황실에 분할 귀속되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작원에 전에 살던 홍아원을 건설하였다. 강희제는 이 정원을 정친왕(鄭親王) 적합납(積哈納)에게 하사하여, 중친의 정원으로 삼았다. 그리고 친히 홍아원이라 편액을 써주었다.

함풍 10년, 8개국 연합군이 원명원으로 쳐들어와 모든 것을 불태웠다. 이어 주위의 정원에도 야만적인 강탈과 방화를 행하여, 베이징 서쪽 외곽 지역의 작원을 비롯한 정원들이 많이 훼손되었다. 중화민국 초기 작원은 군벌 진수번(陳樹藩)의 소유지였다. 1919년 존 스튜어트는 연징대 초대 총장으로 임명된다. 당시 학교는 협소하고 낡았으며,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이 분산되어 수업을 받았다. 남학생들은 승문문 안 갑옷 공장에서, 여학생들은 등시구동 복합도에서 수업을 받았다. 존 스튜어트는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새로운 학교 부지를 물색했다. 그는 이 일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시 우리는 도성에서 1마일 이내의 지역에 새로운 학교 부지를 찾자는 의견에 동의하고, 근처의 알맞은 장소를 물색하였지만,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몇 세기 동안, 다른 성에서 베이징으로 파견 나온 관리들은 자신의 가족을 위한 묘지를 사기 위해, 외곽의 땅을 모두 사 드렸다. 우리는 노새와 자전거를 타거나 혹은 걸어 다니면서 베이징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적합한 부지를 찾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칭화대에서 한 친구와 만났는데, 그 친구가 왜 칭화대 맞은편의 땅을 사지 않는냐고 물었다. 그 부지를 살펴보니 이화원으로 가는 도로 쪽에 연결되어 있었다. 도성 중심에서 5마일 정도 떨어져 있었지만, 길이 잘 정비되어 있어, 우리가 이제껏 살펴봤던 부지와 비교해 따져보면, 실제로 도시 중심과 훨씬 가까웠다. 우리는 이 부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 근처에 있는 언덕은 과거 중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과 사당으로 유명한 서산이었다.”

존 스튜어트는 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산시성으로 가서 진수번을 만나게 된다. 이 때 진수번은 아주 싼 가격에 이 부지를 연징대학으로 넘겨준다. 연징대학은 이렇게 작원의 자리에 세워진 것으로, 이를 시작으로 주위의 경춘원·명학원·양윤원·위수원을 구입하여, 이 후 농원·연남원·연동원들을 건설하였다. 이로써 연징대학은 380무(畝)를 시작으로 170여 헥타르까지 부지를 확대해 나갔다. 오늘날의 작원은 이미 그 옛날의 작원의 모습이 아니고, 단지 작원이라는 우아한 명칭만이 사람들에게 무한한 상상에 빠지게 한다.

어떤 이는

“연원을 나가는 사람은 선구자가 아닐 수도 있고,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들은 이 사회의 정신적 귀족이다.” 라고 말했다.

당시 우리들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연원으로 들어가, 식당에서 등록하고 많은 건물들의 위치와 교문으로 연결된 길을 확인했다.

연원의 서문은 당시 연징대학의 정문이었지만, 베이징대 사람들은 1926년 베이징대 졸업생들의 기부로 만들어진 이 문을 미명호 호숫가의 상징적 건물로 여기길 바란다. 서문은 연원의 가장 주축이 되는 시작점에 위치하여, 연원으로 들어가는 가장 좋은 입구이다. 예일대를 졸업한 연원 건축설계사 헨리 머피는 교정 계획도를 제도할 때, 옥천산의 탑에서 영감을 얻어, 학교의 주축선이 그 탑으로 연결하게 하였다. 학교의 주요 건축물과 호수를 그 주축선 위에 놓고, 옥천산 고탑을 기점으로 동쪽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학교의 주축으로 삼았다. 이로써, 서문의 위치가 정해진 것이다. 그는 전통적으로 남향 건물을 짓는 베이징의 건축 방식과는 다르게, 연원의 교문을 서쪽으로 잡고, 많은 디자인 자료를 수집하여, 학교 내 건물 양식과 일치하는 교문 설계를 위해 힘썼다. 마침내 그는 지금 이렇게 품격과 고전미를 갖고, 이화원의 동궁문과 비슷하며, 민족적 색채가 풍기고, 세계의 문을 갖고 있으며, 붉은색으로 칠해진 궁궐 문과 같은 서문을 완성하였다.

서문을 마주하면, 고전적 느낌이 강한 정원식 강의동이 즐비해 있고, 잔디밭에는 원명원에서 온 두 개의 화표(華表)가 있다. 교우교를 넘어, 구불구불한 다리를 지나, 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니 북국강남의 경관을 이룬다. 허우런즈(侯仁之)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서교문에 들어서니 네모난 연못에 석교 하나가 있었다. 내가 왔을 때, 여전히 그 곳에 물이 있어, 다리 밑에서 샘솟아 올라오는 것을 보니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주희의 시가 떠오른다. ‘네모진 못 맑게 펼쳐져, 구름, 그림자, 하늘빛 서로 어울려 배회하네, 묻노니 어떻게 하면 저처럼 맑은가, 근원의 샘물 팔팔 쏟아져 내리네(半畝方塘一鑑開, 天光雲影共徘徊. 問渠哪得清如許, 為有源頭活水來.)”

베이징대에 있어 서교문은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연원의 상징적 건축물이며, 베이징대의 이미지이다. 풍부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서문으로 들어서면, 베이징대라는 정신적 성지로 들어온 것이며, 신성한 학술전당에 오른 것이다.

연원의 현재 정문은 남문이다. 하지만 남문은 베이징대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그저 사진 배경일 뿐이고, 해정진으로 향하는 문은 소남문이다. 이곳이 학생들이 가장 많이 들락날락거리는 문이다. 왜냐하면 학생기숙사가 근접해 있기 때문에, 신발수리공과 아이스끼키를 파는 리어카가 매일같이 그곳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학생들을 맞이한다. 서남문은 작해로 바로 가는 작은 길이다. 스페인에서 증정한 세르반테스 동상이 길가에 세워져 있다. 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세계 각국 유학생들이 모여 산다. 동문은 예전에 칭화대 남학생들이 베이징대 여학생들에게 작업 걸 때, 거쳐 가던 필수 코스였다. 동북문은 베이징대 학생들이 원명원으로 가는 가까운 길이다. 사방으로 다 통하는 교문은 베이징대의 정신과 많이 닮아 있다. 어떤 방향이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꼼꼼히 따져보고, 많이 노력해야 한다.

베이징대 교정은 전통적 중국 정원과 많이 닮아있다. 단아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지만, 그 속에는 많은 역사와 사상적 무게가 담겨 있다. 이런 느낌은 매일 지팡이를 짚고 미명호 주변을 산책하는 노선생들의 뒷모습에서 여실히 느껴진다. 젊은 학자들의 그들을 향한 존경어린 눈빛에서 그들은 사상과 현대적 선비의 대표로 비춰진다.

인문사상의 최고봉과 시의에 대한 추구, 그리고 미명호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자신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은 베이징대 사람들도, 학교에 대한 원망이 없고, 심지어 베이징대를 평생 영혼의 성지이며 영혼의 종착지라고 생각한다. 연원은 이런 매력을 가진 곳으로, 당신에게 ‘당신은 천지 사이를 독립적으로 걷는 사람’이라고 알려준다. 전통적 중국인의 정수는 이미 우리의 혈액에 녹아있던 그런 것들과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것들을 제외하고, 많은 것들이 사회의 과도에 없어지거나 박물관 구석에 방치되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 중국인의 정수는 베이징대 같은 소수의 공간에 살아 숨 쉬고 있으며, 이것이 미명호가 갖고 있는 매력이다.

청 광서 24년(1898년) 6월 11일 다음과 같은 조서가 내려진다.

"경사대학당 창설을 각 성에 제창한다. 가장 먼저 이를 거행하고, 군기 대신 총리 각국 사무 오대신회를 불러 함께 이를 조속히 의론하라."

7월 4일 경사대학당 창설에 손가내(孫家鼐)를 파견하였고, 관서국 및 역서국을 모두 경사대학당으로 병합하였다. 이로써 8월9일 경사대학당이 세워졌다. 양계초(梁啓超)는 경서대학당 규정의 초고를 마련하였는데, 초기 경사대학당이 규정한 교육방침은 ‘중국학문을 기본으로 서양학문을 응용하고 이를 통해 발전한다.’ 였다. 1912년 경사대학당은 베이징대학으로 교명을 바꾸고, 저명한 교육자들이 베이징대 총장을 역임하였다. 1916년 저명한 사상가 채원배(蔡元培)가 베이징대 총장을 역임하였고, 베이징대학은 5·4운동의 발원지이자, 중국 신문화운동의 중심이 되었다.

연원, 1950년대 초부터 베이징대학과 옌징대학이 통합된 이후, 새로운 베이징 대학은 많은 학생들의 젊음으로 살아 숨 쉬게 되었고, 오래된 정원에는 젊음의 생기와 빛이 넘쳐흐르게 되었다. 반짝이는 물결 안에 복숭아꽃처럼 아름다운 청춘의 미소, 불꽃처럼 뜨거운 열정적 이상, 봄처럼 순결한 연정이 가득했다. 청춘은 온통 보랏빛으로 가득한 물망초이고, 호숫가에 눈부시게 핀 붉은 꽃들이며, 은은한 향기의 라일락꽃과 같다. 호숫가 벤치는 청춘의 즐거움과 심도 깊은 사색으로 가득 차 있다. 어디서든 교수와 학생 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아름다운 글귀와 호수 빛 그리고 산 빛이 어울려 하나가 된다.

나는 사람의 일생에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있다고 믿는다. 나의 숙명은 바로 미명호가 내 시야에 들어온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미명호는 내 인생에서 거쳐야만 하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정거장일지 모른다. 그때부터 나는 언젠가 다시 미명호를 만날 것이라는 알 수 없는 느낌과 확신을 받았다. 마침내 나는 미명호를 다시 찾았고, 붉은 노을이 지는 시각, 나는 미명호 주위를 몇 바퀴나 돌았던지, 살며시 그녀에게 말을 건넸다.

"미명호, 나는 머나먼 타국에서 다시 너의 곁으로 돌아왔다. 사람들은 떠나고 나면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는 그럴 수가 없었다. 너의 열은 안개가 가는 끈으로 변해 나를 붙잡는 것을 뿌리칠 수가 없었다. 그 끈은 항상 내 주위에서 나를 감고 있었다.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미명호에 대한 이런 연민은 베이징대 사람들의 변하지 않는 낭만이다.

2. 낭만적인 미명호와 박아탑

베이징대 사람들의 낭만은 학교 교가에 그대로 녹아있다. '조용한 호수의 물결 소리, 멀리 보이는 고탑은 의연히 자리를 지키네.' 박아탑(博雅塔)이 서 있는 곳을 성지라고 한다면, 미명호는 성자들이 바라는 은택이다. 오랜 기간 동안 미명호는 많은 학자들을 모았고, 그들은 미명호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두근거리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고, 미련을 남겨둔 채 사색하며 이곳을 떠났다. 미명호는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은 미명호의 심오함을 더 많은 숭배자에게 전해줌으로써, 숭고하고 아름다운 전설을 계속 이어져갔다.

연원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에도 베이징대 사람들의 정신이 녹아 있다. 그 중 가장 낭만이 넘치는 곳은 미명호와 박아탑이다. 물결이 반짝이는 미명호의 고요함은 백여 년 간 연원에 자리 잡아, 끊임없는 기복을 이루는 지세와 호숫가 인접한 곳을 아름답게 꾸미고, 미명호를 따뜻하고 아름다운 옥구슬로 묘사하였다. 호숫가 하늘거리는 수양버들과 오솔길은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다. 이곳은 화려하고 시끄럽기만 한 바깥세상과 다른, 마치 성지와 같은 조용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 미명호 남쪽에는 맑고 아름다운 종각이 있고, 고요한 호숫가 집들이 있으며, 그리고 소박하고 예스러운 에드가 스노우의 묘가 자리 잡고 있다. 북으로는 덕재(德齋), 재재(才齋), 균재(均齋), 비재(備齋), 체재(體齋), 건재(健齋), 전재(全齋) 일곱 건물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다. 서쪽으로는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사무동과 오랜 시간 동안 의연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서교문이 보인다. 또 동쪽으로는 웅장한 박아탑과 인접해 있어 한 편의 시와 한 폭의 그림을 연상시킨다. 호수 가운데에는 섬 하나, 물고기 한 마리, 석방 하나가 있는데, 이들이 모여 묘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호수 가운데 섬에는 나무가 울창하여 봄, 여름에는 나무들이 녹음을 자랑한다. 이 숲 안으로 들어가면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정자 누각, 돌 벤치, 기괴한 나무들, 수려한 암석으로 가득 찬 이 섬을 ‘미명호의 명주’라고 부른다. 석어를 둘러싸고 있는 물결은 태양과 달빛의 광채에 반짝거리고, 지혜와 재기를 내뿜는다.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 변함없는 석방은 조용히 학자들의 성장을 지켜보고 있다. 매년 봄이 되면 호수 위 얼었던 얼음이 녹고 버드나무가 새싹을 돌아, 눈 깜짝할 사이에 수많은 꽃들은 호숫가를 화려하게 수놓는다. 여름이면 연잎이 호수 면을 뒤덮는다. 가을 날 바람 한 점 없이 물결은 고요하고, 호숫가 주위와 호수 가운데 자리 잡은 섬, 그 안의 나무들이 황금색 옷으로 갈아입는다. 호수는 이렇게 계절마다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이곳에는 시끄러움과 화려함이 없다. 그저 조용함과 소박함이 있을 뿐……. 지독히 추운 겨울이 오면 호수는 두터운 얼음으로 뒤덮이고, 호수가의

모든 나무들도 눈 속에 묻힌다. 그러나 호수의 얼음 밑에는 봄기운이 세차게 흐르고 있다.

미명호에 다가서면 생동감이 넘치는 고요함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고요함은 영혼의 깊은 곳에서 샘솟아 나오는 적막함을 원치 않고, 평범함을 견딜 수 없는, 영원히 찾아나가야 할 사랑이자 궁극적 목적이다. 이것은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명감으로 베이징대 사람들의 영혼과 가치관이다. 당신이 미명호 근처에 앉아 진심으로 그녀를 느끼고자 한다면, 당신은 그녀의 영혼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미명호는 안개가 자욱하다가도 맑고 청량한 모습을 보인다. 맑은 날 부는 바람처럼 냉정했다가, 검은 구름이 잔뜩 끼고, 뿌연 안개로 주변의 모습을 분간하지 못하다가도, 날씨가 맑은 날이면 박아탑이 그대로 비칠 정도로 청아하다. 이런 독특한 매력으로 문인들의 영혼이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많은 학생들의 영감과 지혜가 샘솟는다.

당신이 고개를 숙여 보면 미명호의 작은 다리, 흐르는 물, 종각, 섬, 그리고 누각, 물이 흐르는 긴 통로, 미명호 주위의 뽕족한 처마의 건물들에 도취되고, 고개를 들어보면 드높은 기세로 온갖 풍상 속에 역사의 유구한 세월을 보낸 박아탑의 기세에 놀랄 것이다.

1921년 세워진 박아탑은 수탑(水塔)으로 건설 당시 수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지금은 중국 최고 고등학부의 영원한 경전이 되었다. 박아탑은 북조시대 통주(通州)의 연등탑(燃燈塔)을 본 따 설계한 것으로, 13층의 높이, 37미터로 나선형 계단이 꼭대기까지 이어져 있다. 오랜 기간 미명호는 온화하게 박아탑의 힘찬 수원을 받아들였고, 박아탑의 수원 공급이 있었기에 미명호는 더욱 더 많은 것들을 품을 수 있었다. 미명호와 박아탑의 운명 같은 만남은 영원히 아름다울 것이다. 호수는 물결치고 탑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다. 호수는 부드럽고 탑은 견고하다. 호수는 섬세하고 탑은 위용이 있다. 호수는 활기차며 탑은 사색에 잠긴다. 호수는 땅에 기대어 평안을 구하고 탑의 곧고 숭고함은 하늘을 향한다. 호수는 여성적인 우아함을 탑은 남성적인 강인함을 갖고 있다. 미명호를 '연원의 눈'이라

한다면, 박아탑은 ‘반짝이는 눈동자’이다. 박아(博雅)라는 두 글자는 베이징대 정신에서 가장 영원한 상징이다. ‘베이징대에는 박아탑이 있고, 박아탑에는 영혼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베이징대의 박(博, 식견이 넓다)과 아(雅, 고상하다)이다. 박아(博雅)는 문명에 대한 끊임없는 계승이며, 과학과 진보에 대한 섬 없는 추구이다. 박아탑은 조용히 그 자리에서, 밤하늘을 쉬지 않고 이동하는 별처럼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담담히 서 있는 그 모습은, 시끄럽고 때가 얼룩진 인간 세상에서 박아탑의 고결함을 보여준다. 박아탑은 호수의 물과 홍루의 우아함을 유지하고, 민족정신과 희망을 담고 있다. 미명호와 박아탑은 연원의 가장 아름다운 신화이며 연원의 영혼이자, 또한 수많은 베이징대 사람들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영혼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미명호 서쪽에 위치한 작은 토산의 육각형의 종각(鐘亭)이다. 사람들은 늦은 밤 청동을 살며시 친다. 그 이유는 이 종소리에는 영원한 사랑의 약속과 연인의 달콤한 속삭임, 나아가 부드러움과 관용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많은 베이징대 사람들은 종각은 사랑의 시작이며, 사랑의 끝이라고 말한다. 이곳에서 마음의 이야기를 터놓기 좋아하던 학자는 종각은 그들의 정신적 의지였다고 말하고, 곧 떠나려는 사람은 종각은 베이징대 사람들의 정신을 대표한다고 말했다.

쥙푸(宗璞)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자에는 정자의 길이 있고, 종에는 종의 길이 있다. 그 각자의 서로 다른 길이 서로 얽혀있음을, 수천 년을 연구해도 다 하지 못한다."

이 청동종에 대한 유래는 이화원 황실 정원 안에 기록되어 있다.

"섬 북측 남취 사이, 1899년 서태후는 이곳을 열병대로 삼고, 이홍장이 선발하여 데리고 온 북양수군과 막 졸업한 수군학당 해병대 학생들을 사열하였다. 전시 훈련 적응을 위해 기선을 포함으로 바꾸고, 동서로 포병부대와 기마부대를 배치

하였다. 당시 수군이 보고할 때 사용했던 것이 이 종이다. 1900년대 약탈되었으나, 나중에 연경대학에 자리를 잡았다. 현재는 베이징대학 미명호 호숫가 종각 안에 있다."

미명호에 온 사람들은 종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종각은 북으로 호수와 인접해 있고, 베이징대 사람들에게 친숙한 석어와 마주하고 있다. 남쪽의 토산 밑에는 건륭제 시비(乾隆帝時碑)가 있으며, 시비 서쪽 멀지 않은 곳에, 채원배의 동상이 있다. 채원배 동상과 건륭제 시비 사이에 조그마한 오솔길이 있고, 이 오솔길은 호수와 연결되어 있다. 아마 종각을 건축한 사람이 아마도 사람들이 볼품없는 작은 토산을 돌아가다가 아름다운 종각을 그냥 지나칠까봐 걱정되어, 종각을 찾아오기 쉽게 북·서·남으로 작은 오솔길을 만들었나보다. 이 오솔길들은 들쭉날쭉한 돌들이 놓여 있어, 일률적인 돌계단이 놓인 것보다 더욱 더 산을 오른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다 보면 종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이 종의 하단은 여덟 잎의 연꽃으로 구조되었고, 넘실대는 대해와 떠오르는 태양이 조각되어 있다. 종 전체적으로 보면 열두 마리의 교룡이 춤을 추고 있으며, 두 마리의 거대한 청룡이 종각 끝까지 이어져 있다. 종의 몸체에는 한족과 만주족 두 민족의 문자로 '대청국 병갑년 팔월 제조(大清国丙甲年捌月制 1896년)'라고 쓰여 있다. 경사대학당보다 일찍 만들어지다니! 전설에 따르면, 사랑하는 남녀가 이곳에 죽어 그들의 영혼이 떠돌아다닌다고 한다. 밤이 깊어지면, 원앙이 종각 안으로 들어가 맴돌고, 아쉬움에 돌아가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종소리를 들어 보면 서로 다른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이런 전설은 증명되지 않았지만 베이징대 사람들의 낭만을 보여준다.

많은 역사를 겪고도 소박하고 진솔한 모습을 가진 이 종은 연원의 과거를 품고 있을 뿐 아니라 연원의 미래도 갖고 있다. 어느 겨울 날 종각에서 시 한편 쓴 적이 있다.

마른 잎이 바스락 거리고
새들은 가볍게 지저귀네.

미명호는 낮은 목소리로 탄식하고
고요한 오솔길에
우리들이 발자국은 그대로이네.
고독한 종각 안에
당신의 그 굳은 맹세 흔들리고
얼어버린 호수 위에
희미한 안개가 자욱하네.

만약 과거의 일이 삶에 새겨지는 감정의 도장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내 기억 속에서 어떻게 지워야 할지 모르겠다. 지금 너무나도 익숙하면서 낯선 미명호에 서서, 외롭게 그 자리에 있는 종각을 바라보며 세월이 무정함에 탄식한다. 어떤 이는 미명호는 낭만의 천국이라고 하였다. 호수 하나, 탑 하나가 정이 깊은 부부 같이 서로를 그리워하며, 밝은 달 아래 호수는 탑의 그림자를 감싼다. 낭만과 진심이 절로 생긴다. 어쩌면 이것이 베이징대 사람들의 성격일지 모른다. 베이징대 사람들은 모두 미명호와 박아탑을 베이징대의 상징으로 삼았는데 어쩌면 이 안에 베이징대 사람들의 정에 대한 그리움, 사랑에 대한 집착, 낭만에 대한 추구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미명호와 박아탑은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다. 그리고 베이징대 사람들의 번영과 꿈, 베이징대 사람들의 고난과 상처를 품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미명호의 품 안에서 성장했고, 연원은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었으며, 부단히 노력해야 할 정신과 용기를 주었다. 이것들은 우리들 일생에 중요한 재산이다. 우리가 어떤 곳에 살고 있더라도, 우리의 꿈은 영원히 미명호와 박아탑을 맴돌고 있다.

3. 차가운 시선에서의 비판

그 날, 제2강의동에서 강의를 마치고 나와, 건물 옆을 따라 길게 호두나무가 가득 늘어서 있는 작은 길 뒤를 향해 지나가다, 예전 자주 책을 보던 작은 호수에 도착했다. 이곳은 한쪽은 미명호에, 다른 한편은 이름 모를 어느 산에 인접해 있다. 산에는 소나무와 측백나무, 이름 모르는 나무들로 울창하다. 호수 안의 푸

른 잎들은 하늘과 맞닿아 아름다움을 뽐내고, 붉은 연꽃이 빛을 받아 반짝인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상관없이, 항상 비취색이고, 산의 물빛은 짙은 녹색을 띠고 있어, 마치 녹색 안개 속을 걷는 느낌이 든다.

오솔길을 따라 호숫가 작은 집들을 둘러보다, 채원배(蔡元培)교장의 동상을 만나게 된다. 채원배는 1912년 <교육 방침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고, 학술은 민족 생존의 실리적 목적을 넘어서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학생들에게 ‘만물과 벗이 되라’하였고, 그의 이러한 생각이 베이징대학을 만들었으며, 베이징대를 더욱더 발전시켜, ‘관료양성소’이던 베이징대를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 고등교육 기관과 신형대학으로 변화시켰다. 이는 위대한 업적이라 말할 수 있다. 채원배는 총장으로 있던 시절 자신은 항상 ‘동한의 당인, 남송의 도학, 명계의 동림’을 모범으로 받아들였으며, 또한 학생과 교수들에게 지식인의 독립적 사고의 전통을 승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많은 격려를 해 주었다. 사회 타락과 정치 부패의 혼잡한 세상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물러서지 않고 도전을 마주하는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채원배는 대학의 연구 성격을 강조하였고 교육을 강조하였으며 교수들이 학교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문과와 이과간의 소통을 중시하였다. 이 모든 것을 ‘베이징대 정신’이라고 부른다. 무엇이 베이징대 정신인가? 진인각(陳寅恪)은 이를 ‘독립의 정신이며, 자유의 사상’ 이라고 말했다.

이번 귀국 강연은 베이징대와 칭화대에서 각각 이루어졌다. 이 두 학교는 다양한 문화와 깊은 역사를 갖고 있다. 중국인들은 베이징대와 칭화대에 어떤 경배심을 갖고 있다. 칭화대학이 인문학의 혈맥을 끊었다면, 베이징대학은 이를 계속 이어 나갔다. 박아탑과 미명호를 마주할 때면, 가슴 속에서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끓어오른다. 고등학교 시절 보아왔던 미명호의 물결은 내 마음을 끌어 당겼다. 베이징대에 대한 나의 편애는 미명호에 가득한 인문학적 분위기 때문이다. 찬란한 역사, 뛰어난 인재들로 가득한 미명호는 온갖 역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켰다. 지난 백 년간 베이징대와 진리·자유·신지식은 중국혁명의 변화와 함께 발전했다. 채원배, 호적, 노신 등 많은 사람들이 국민과 진리를 위해 소리 높여 외쳤으며,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내가 베이징대를 사랑하

는 이유는 또 고풍스럽고 단아한 교정 때문이기도 하다. 좁고 작은 길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성현의 자취가 함께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언론 매체의 보도에서 보면, 과거 베이징대에 비해 현재 베이징대의 교육 방향은 다소 실망스럽다. 현재 베이징대 학생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있다. 거둬 말하자면 불건전한 인격으로 특하면 문제를 일으킨다. 야만스러운 도살자와 무엇이 다른가! 베이징 대학생들의 수준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사회는 아직도 ‘칭화대 학생들은 성숙하고, 베이징대 학생들은 경박하다’고 평가한다. 저번 베이징대 개교 100주년 행사 기간 동안 시끌벅적함은 학생들은 그다지 참여하지 않고, 관리들만 참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베이징대는 노신의 내세운 ‘베이징대는 위를 향하고, 새로운 것을 위한다’는 말을 특히 좋아하는데, 위에 이야기한 현상을 접하게 되니 빛이 바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오늘날 베이징대학의 전통적 학과들은 그 위치를 점점 잃어가고, 가치 있는 강좌들도 그 수가 점점 줄어가고 있지만, 상업과 현학강좌에는 학생들로 가득하다. 도서관에서 더 이상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고, 나이트장의 불빛이 대낮처럼 밝다. 학교 안에는 개인 자가용이 가득하고, 남녀 간 사랑·경솔함·우울함·CBA·PMP·MBA가 생활의 주류가 되었으며, 종교도 그 자리를 잃었다. 지금 타락하고 있는 것은 여성 뿐 아니라 어찌하면……. 어떤 이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고 한다.

“현재 중국이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닌가요?”

그래서 많은 이들은 대학생은 타락하면 안 된다고 소리 높여 말한다. 하지만 어떻게 말하던 관리는 부패해도 되지만, 국민은 부패하면 안 된다는 의심이 든다. 게다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타락하지 않아도 괜찮은가? 영문학을 전공하는 한 여학생이 전에 나에게 농담조로 말을 했었다.

“우리가 바로 타락이죠!” - 그녀들의 타락이 어찌나 떳떳했는지!

매번 귀국 강연에서 아름다운 젊은 여대생들이 나이도 가늠하기 어려운 외국 인들과 딱 붙어 다니는 것을 볼 때면, 가슴 속에서 그들에 대한 연민이 올라온다. 그녀들의 방법이 옳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많은 여학생들이 자신의 앞날을 위해 자신의 청춘과 영혼, 그리고 소중한 존엄을 버리고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다. 출국과 돈이 당장 그녀들에게 중요하기에, 아낌없이 그녀들이 존엄성과 교환을 한다. 현재 중국 시장경제는 충분히 생활의 아름다움을 향유하고 있어서, 나무가 무성한 학교 안에 신신인류(新新人类)라 불리는 세대가 등장했다. 그들은 '카드시대'를 이끌어 가고 있으며 여학생들이 그 아름다운 중심에 있다. 그녀들은 그저 평범한 가정에서 생활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녀들이 온몸에 치장하고 다니는 것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 그녀들은 그저 자신의 재능과 학식에 기대, 좀 우아하고 고상한 듯 보여 진다. 그래서 이것으로 신세대 여대생들은 각종 기회를 자신의 허리춤에 붙잡는다. 돈이라는 것은 당연히 청춘을 간판으로 하는 아름다운 얼굴과 몸매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그녀들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장소에 모여, 자신의 신체의 제한을 두지 않는 일부분, 즉 얼굴을 보여준다. 그렇게 그녀들의 얼굴은 약속이나 한 듯, 이 시대의 표지에 실려 팔려 나간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대의 박사논단에서 한 학생이 현재 베이징대가 옳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학생들이 공부를 외면하고 있고, 정신적 베이징대가 물질적 베이징대에 의해 침범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였다. 그 날 강단에 섰던 한 박사는 이런 현상에 대해 다른 사람들처럼 대답을 회피하지 않고, 역대 베이징대의 추악했던 일들을 끄집어내며 이야기했다고 한다. 학교 내 나이트가 판을 치고, 여대생들이 비싼 차에 아무렇지도 않게 오르는 모습을 비판하며, 엄숙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베이징대, 너는 이렇게 타락할 수 없다."

그의 말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사실 이런 학생들은 연원 안에 그저 일부분일 뿐이다. 하지만 그들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그녀들을 신신인류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는 20세기 이상적 색채가 가장 약하고, 개성적 색채가 가장 강한 시대의 사람들이다. 이 시대 사람들은 '분노의 외침'으로 자신을 표현할 필요가 없고, 일상 행위와 소비 방식으로 개인 생존의 가치를 쫓아가면 된다. 그녀들은 또 다른 것을 숭상한다. '쿨(cool)'은 전형적인 존재 언어이고, '쿨'은 가장 효과적인 사회 교류 방식이다. 그녀들은 명품을 사랑하지만 개인적 느낌을 더욱 중시한다. 그녀들에게 쾌락은 제일 우선 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녀들은 인내심이 부족하고, 그저 잠시 생각하고 모든 것을 이해해 버린다. 그녀들은 약속이나 한 듯, 저녁이 되면 파티에 등장하여 과감하면서 나약한 듯 남자를 상대하고, 끝나지 않는 연애와 이별을 반복한다. 공개적 장소에서 그녀들은 약속이나 한 듯, 돈 좀 있으면서 수준이 좀 되는 그런 남자들에게 자신을 노출하고, 그녀들은 그들에게서 걱정 없는 생활을 제공받는다. 이러한 아름답고 젊은 연원 미녀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출중한 미모를 지녔고 또 약속이나 한 듯이 미인으로서의 자신들의 사명을 이행하고 있는 듯하다. 이들의 이면을 보면 어떤 이는 마음껏 즐기며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떤 이는 진심 반, 거짓 반으로 세상과 장난을 치며 살아가고 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연원 안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것일까?

나는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은 일부 베이징대 사람들의 세계관과 개인 가치관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이유 외에도, 그녀들의 허영심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그들의 화려한 옷차림을 보다 보니 속이 상하고, 자신의 노력만으로 그들을 따라가려고 하니 그 과정이 너무 힘이 든다. 오랜 신념이 있어야 하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기에 그녀들은 쉬운 방법을 선택했다. 현실 생활이 너무 평범하다면, 그녀들은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 그녀들의 화려한 생활을 영위했다. 그녀들의 신앙 세계에는 자극과 쾌락만이 있을 뿐이다. 그녀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녀들을 부러워하는 눈빛에서 또 다른 만족을 얻는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쾌감이라고 할까, 이런 만족감이 계속 이어지게 하려면, 오직 끊임없이 숨겨야 한다. 이미 자신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자존심과 다시 오지 않을 청춘의 모습을…….

‘쌩’ 이것은 하나의 소리로, 연원의 많은 장소에서 날카로운 무기였다. 강단에 서 그럴 듯하게 수준 높아 보이는 그런 부류들의 말에 ‘아니요’라는 말을 하는 것이다. 가장 통쾌했던 순간 중 하나는 20여 년 전, 소위 유명하다는 한 사람의 강연에서였다. <서양의 문명> 이라는 제목의 강연으로, 서양 문화의 위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십여 분 정도 시간 동안 안색을 붉히고, 침을 튀기며 미국성 해방을 강연하였다. 견디기 힘들어 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의 강의에 폭발하여, ‘쌩’ 하며 큰 소리를 냈다. 그의 이런 소리에 이곳저곳에서 박수 소리가 쏟아졌다. 그의 강연이 철저히 ‘부정’되었는데, 이런 것을 베이징대의 ‘쌩 문화’ 라고 한다.

이 무기가 더욱 사용되는 장소는 바로 식당이다. 보통 영화가 클라이맥스에 다 달았지만, 주인공 연기가 너무 부자연스러울 때, 학생들은 모두 ‘쌩’하는 소리를 낸다. 이는 조잡한 영화에 대한 멸시이다. 연원을 떠난 지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쌩’ 하는 소리가 베이징대를 조준하고 있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왜 그럴까? 베이징대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인가? 이에 대해 나는 대답을 할 수 없다. 베이징대학은 이과대학이다. 아주 긴 이과역사를 갖고 있는데, 거슬러 올라가보면, 1862년 경사동문관이 설립한 수학·화학·천문·자연과학대학으로 수학·물리학·화학·지질학과는 중국 대학 중 가장 먼저 세워진 학과이다. 1902년 경사대학은 자연과학과를 만들고, 같은 해 사범대학은 수학·물리학부를 만들어, 중국 수학·물리학의 고등교육 기초를 마련하였다. 베이징대의 수업은 어렵고 힘이 든다. 사년 중 삼년 반은 정말 열심히 해야 한다. 내가 학교 다니던 시절 공부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베이징대 이과 과정은 미국 대학원 과정과 맞먹는다. 베이징대 물리과 대학원생의 수업인 고등양자역학 같은 경우, 미국 대학의 전문 물리 교수들조차도 배운 적이 없는 것들이다. 하지만 베이징대에서의 몇 년간, 나의 과학에 대한 경험은 그저 시험과 문제 풀기가 전부였다. 어떻게 과학 연구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과학 보고서를 들었는지는 말하지도 말라. 문헌을 찾는 방법도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다.

베이징대 사람들의 말은 모두 <인민일보>에 바탕이 있다. 간단하고 일상적인

일을 이야기하더라도, ‘정권의 잘잘못을 평하고 글의 좋고 나쁨을 비평하는 것’을 좋아해서 어떤 이론으로 무장하고 채워 넣는다. 이런 경솔함은 베이징대의 일부 교수로부터 비롯되었다. 많은 제자들 앞에서 이론을 설명하면서 어렵고 알 수 없게 가르치는 것이다. 실험은 경시하고 원리만을 중시해 경전 인용을 즐긴 나머지 간단한 생각을 복잡하고 비밀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나는 베이징대가 과거의 역사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가져야 하는지를 종종 생각한다. 그렇다. 현대 중국의 3대 사조인 자유주의·급진주의·보수주의에 앞장선 사람들을 보면 베이징대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현대운동 특히 5·4운동과 현대 중국사회 발전 방향을 제약하는 사회운동이 베이징대에서 시작되었다. 현대 생활에서 공공 생활에 대한 열정이 개인의 사사로운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역시 베이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베이징대 사람들은 이처럼 사회사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국가의 큰 일, 특히 국가와 민족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공공의 정치 문제에 대해 집약적으로 의견을 표출하여 현대 중국사회에 대한 영향이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베이징대는 중국에서 가장 민주적이며 자유로운 장소이다. 하지만 베이징대에는 무엇인가가 부족하다. 베이징대에서 시작된 정치운동은 중국의 역사를 몇 차례 변화시켰다. 민주와 자유의 정치운동에 젊은 학생들이 앞 다투어 참여했다. 이런 운동들의 지도자들을 살펴 보면, 모두 막 대학에 들어왔던 젊은 대학생들로 다시는 이 운동들처럼 ‘비이성적’ 특징과 ‘비극적 결말’이 되서는 안 된다. 베이징대의 중년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민주와 자유의 이념을 주입했지만, 고난이 찾아오면 이에 연루되는 것이 두려워 배후에 숨어 나서지 않고, 그저 탁상공론만 펼쳤을 뿐이었다. 만약 보다 많은 중년 교수들이 지도자로 참가했다면, 또 운동이 보다 ‘이성’적이었더라면 많은 학생운동이 이처럼 비극적이고 참혹하게 끝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풍파가 지나고 나면, 그들은 또다시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고 지식인이 된다. 그러면 용감하게 사회에 대해 책임을 느끼는 소수의 교수들은 더욱 눈에 띄고 고독해진다. 그래서 나는 베이징대 일부 교수들은 이런 역사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시대 베이징대 사람들과 1980년대, 1990년대 베이징대 교우들 사이에는 큰 장벽이 있다. 우리가 당시 받았던 교육

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고, 사회 진화주의와 민족 지상주의라는 낡은 유물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에게서 최소한 베이징대 사람이라는 자존심은 있다. 하지만 새로운 베이징대 학자들은 문제가 있다. 지식과 정보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나은지는 몰라도, 그들은 무분별하게 서양 문화의 쓰레기를 갖고 들어오고 있다. 사회 변혁의 팽창에서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인격조차 아무렇지 않게 팔아치운다.

베이징대에서 교수를 하던 한 친구는 주말이 되면 베이징대 입구 안팎에 정차하고 있는 고급 승용차들을 바라본다고 한다. 자동차 주인들은 모두 기력이 왕성해 보이는 중년층으로 양팔에 베이징대 여학생을 끼고 아주 행복해 보인다고 한다. 그는 교수로써 이런 일을 막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현재 학생들에게는 과거와 같은 스승에 대한 존엄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나는 ‘그들은 당신이 학생이 아닌가?’ 라고 물었지만, 그녀들을 학생이라 부르는 것은 그것은 정말이지 그녀들에게 아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 베이징대 사람들의 ‘셋’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그들은 너무나 관용적으로 변함과 동시에, 무의미함과 타락에 무대를 제공하고, 사력을 다해 돈을 모으고 해외로 나가려는 주류를 너무 많이 참고 이해하고 있다. 이럴 때면 나는 과거 베이징대의 ‘셋’ 소리가 너무나 그립고, 베이징대 사람들의 과거 진실했던 시간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한다.

과거 도서관에서 공부했던 생각이 난다. 나는 지금 웅장하게 변모한 새 도서관의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베이징대 도서관은 중국 대학에서 가장 우수한 도서관으로 베이징대 인재들은 이곳에서 배출되었다. 한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하셨던 말씀이 떠오른다.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은 자주 내 수업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수업시간에 도망쳐서 도서관에 묻혀있던 학생으로 정말이지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오랜 시간 연구하여 번영 대국 이룩하다’ 이 문구는 베이징대 도서관에 가장 잘 어울리는 평가이다. 당시 매일 도서관 갈 때면 아침 일찍 일어났어야 했는데, 그 이유는 줄을 서서 자리를 잡아야 했기 때문이다. 현재 도서관에는 오백 여 만 권의 책이 소장되어 있어 이는 베이징대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호화 도서관이지만 좀 차갑게 느껴진다. 당시 도서관 대출증이 찢겨 폐기되었을 때, 나는 다시는 베이징대에 속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서관 안 통로를 걸으며 공부 를 위해 책을 대출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그 당시 내 대출증이 찢기던 소리가 기억났다. 사년을 함께 했던 나의 대출증, 나와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던가, 그 날 저녁 나는 밥 딜런의 노래를 들었다.

I can't use it anymore
It's getting dark too dark to see
Feels like I'm knocking on heaven's door……

특별히 상처 받지 않았지만 기분은 오히려 침울해졌다. 나는 더 이상 베이징대 에 대한 그리움에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절에 이별을 고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사랑만을 고민하던 그 때, 나는 나의 남은 생애에 다시는 이처럼 생각하는 시절이 오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세월이 너무나 빠르게 흘러갔다. 베이징대 사람들은 다른 학교 학생들과 다르다. 모교의 명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며, 모교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냉정히 평가할 줄도 안 다. 베이징대 사람들이 자신들을 냉철하게 해부하는 것은 모교발전에 새로운 동 력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베이징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베이징대가 이처럼 타락 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

내가 베이징대를 차갑게 비판하는 것은 아직도 모교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어 린 시절 많은 시간을, 그리고 베이징대에 입학해서 사년을 연원에서 보냈다. 이 런 연유로 나는 미명호를 사랑한다. 아직도 새벽안개로 자욱했던 미명호를, 그리 고 호숫가에 반짝이던 햇살을 잊지 못하기에, 그리고 작은 숲속의 따듯했던 느낌 을 지울 수 없기에, 나는 미명호를 사랑한다. 미명호를 보면 그동안 움츠러들었

던 마음이 평온함을 느끼고 잃어버렸던 연원에 대한 기억이 다시 돌아온다. 반짝이던 호수물결, 그림 같던 박아탑, 장엄한 다리, 녹색 물결 속에 자유롭게 헤엄치던 물고기들, 모두 시적 의미를 갖고 있고 철학적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 그들은 내 마음 속에서 악장을 만들어 낸다. 때 묻은 세속에서 벗어나 평온한 마음으로 책을 읽다보면 나는 잠시나마 베이징대의 유쾌하지 못한 점을 잊어버리게 된다.

4. 굿바이 미명호

도서관 남문으로 나와 작은 담으로 둘러싸인 조그만 길을 걷다보니, 이 길이 내가 대학생일 때 기숙사에서 도서관으로 갈 때 반드시 지나쳐야 했던 연남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비탈길을 오르면 바로 연남원으로 들어간다. 이곳은 적막함으로 둘러싸여, 이곳에 들어서면 나도 모르게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며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왜냐하면 베이징대 사람들은 알고 있다. 이곳이 베이징대의 ‘성지’라는 것을 말이다.

소위 ‘산은 높지 않아도 신선이 살면 이름이 나고, 물은 깊지 않아도 용이 살면 영험하다(山不在高,有仙則名,水不在深,有龍則靈)’고 말한다. 연남원은 별 다른 특징이 없다. 그저 십여 개의 회색 건물과 카펫처럼 깔려있는 풀밭, 수풀이 전부다. 여름이 되면, 나뭇잎이 무성하게 자라, 시원함을 자랑한다.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 2층 높이에서부터, 제각각 모양의 시멘트 건물들이 있지만 이를 무슨 특징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시멘트 건물 안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상당한 인물들이다. 역사학자 홍예(洪業), 지엔보찬(翦伯贊), 물리학자 저우페이위안(周培源), 저성린(褚聖麟), 경제학자 마옌추(馬寅初), 천다이쑤(陳岱孫), 철학자 펑유란(馮友蘭), 펑딩(馮定), 화학자 장룽샹(張龍翔), 황쯔칭(黃子卿), 언어학자 왕리(王力), 린타오(林濤), 미술가 주광첸(朱光潛) 정말이지 대가들이 운집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나는 매일 49동에서 도서관으로 향했는데, 그 때마다 연남원을 지나쳐야 했다. 어떤 날은 하루에 네, 다섯 번을 지나갔다. 매번 조용히 이곳을 지날 때면,

질푸른 녹음과 서양스타일의 건물들 그리고 중국스타일의 정원들 사이에 지팡이를 든 주광첸과 옷차림이 수수한 저성린, 얼굴빛이 깊은 천다이쑤, 백발이 성성한 저우페이위안 등을 종종 만났다. 교정 안 다른 곳들이 차들로 붐비는 것에 비해 이곳은 매우 고요하다. 가끔 들리는 새들의 재잘거림이 이곳의 독특한 신비감을 한껏 고조시킨다. 이곳에 들어 와 역사를 바꾼 그들을 만나면 정말이지 딴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따뜻한 문체의 세완잉(謝婉瑩)의 <남귀>, 날카로운 문체의 마옌추 총장의 <신인구론>, 수려한 문체의 평유란의 <중국철학사 신편>이 이곳에서 만들어졌다. 중국에 연남원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또 중국의 많은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이론이 이곳에서 퍼져나간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는 이전에 왕리씨 댁을 방문한 적이 있다. 독립된 서양식 2층 건물로 들쭉날쭉한 감탕나무와 측백나무 벽이 그의 집을 에워싸고 있었다. 정원 가운데에는 이월란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왕리는 이곳에서 <한어사고>와 <중국 언어사> 등 다량의 작품과 논문을 써냈다. 56호의 주가화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 이곳에 사는 사람은 칭화대학을 졸업하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이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론 물리학과 유체 역학의 저명한 전문가 저우페이위안으로, 그는 당시 베이징대 총장을 역임하였다. 그 당시 프린스턴에서 교수가 총장을 방문하였는데, 그는 여전히 대학에 도서관을 지날 때 자주 보았던 백발 노인이었다. 그는 스탠다드한 미국식 영어를 사용했지만, 오른쪽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대화할 때마다 큰 소리로 말했다. 그와 천다이쑤는 함께 한 여성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녀가 바로 총장의 네 번째 딸이었다. 들리는 말로는, 천다이쑤는 매일 그 곳에서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매일을 그렇게, 그렇게 세월이 지났지만, 결국 그는 평생 미혼으로 지냈다고 한다.

이런 기억 속의 연남원으로 들어가니 건물들과 나무들은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 없는 법, 많았던 그 노 교수님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시고, 그저 기억만이 이 연남원에 남았다. 한가로이 연남원을 거닐다 보니 세월의 무상함만이 느껴진다. 물이 흐르고, 구름은 그대로인데, 단지 세월만

흘렀구나.

미명호에서 온 모든 것들은 나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에게 청춘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이것은 정말이지 연원의 신기한 일이다. 게다가 각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청춘의 발자국을 밟을 수 있고, 한 시대의 풍류를 누릴 수 있다. 나는 잊을 수 없다. 옛 도서관 앞 잔디밭 위,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던 그 때, 저녁노을이 지던 시각,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기타를 치며 부르던 노래를, 그리고 안개비 속 소나무 아래, 한 연인이 받쳐 든 우산, 그 우산 아래에서 나누는 진한 키스, 마치 작원 안 연못의 이슬을 머금은 병채련(並蒂蓮)같은 그 우산을……

‘넓은 바다 안에 많은 것이 들어있다(海納百川, 有容乃大)’ 이 말을 학교로 형용한다면 당연 베이징대라고 할 수 있다. 베이징대에서 생활했던 모든 사람들은 관용의 분위기가 대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다. 관용을 알아야 개인을 선양할 수 있다. 사실 베이징대 사람의 오만함은 눈빛에서의 오만함이 아니라, 사람과 사물을 대하는 것에 대한 오만함이 아니다. 연원이라는 교내에서 거의 모든 학생들이 재능을 발휘하고 자신이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다. 베이징대는 학생들에게 은연 중 많은 것을 전달했다. 당신이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독립적인 사고방식이 베이징대 안에서 무수히 성장했다. 신입생들이 입학해서 가장 즐거운 순간은 선배들이 그들에게 학교의 역사를 들려주고, 교수님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것이다. 베이징대 전통은 이렇게 웃으며 대화하는 가운데 자라났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지는 가운데 베이징대 정신이 살아있다.

연원에서 널리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내용은 베이징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곳은 성지로써 백 년간 수많은 우수한 학자들이 이곳에서 양성되었다. 풍부한 지식, 번뜩이는 재치, 엄숙하며 두려움 없는 사고방식 이 모든 것이 바른 인

품의 지조 및 용감한 항쟁 정신과 결합하여, 특색 있는 정신적 매력을 만들었다. 과학과 민주는 이곳에서 중요한 영혼이 되었다."

중국에서 당신이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베이징대를 선택해야 한다.

나는 미명호로부터 베이징대에 대한 이것저것을 이야기했다. 베이징대의 백년 역사는 베이징대 사람에 의해 쓰여 졌고, 우리는 무언가를 숨길 자격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무언가를 계승해야 할 의무가 있고, 무엇을 외칠 책임이 있다. 연남원을 나가면서, 나는 베이징대 사람의 혈관에는 파란색의 액체가 흐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따뜻한 봄날의 미명호의 색깔이며, 정신적 귀족의 피이다. 이는 끊임없이 계승될 것이며, 살아 숨 쉴 것이다.

당시 미명호를 떠날 때는 봄날이었다. 연원 가득 꽃들이 경쟁하듯 꽃을 피웠다. 그리고 익숙하면서 낯선 친구들이 남문 밖 장정식당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었다. 익숙하다는 것은 서로가 오랜 기간 알고 지냈기 때문이고, 낯설다는 것은 그들은 내 마음속에 들어 온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마지막 식사 의미를 알고 있었기에, 건배할 때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다. 베이징대를 떠나야, 더욱 많은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세상은 넓고, 그 곳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꿈과 사랑, 그리고 그런 차분하면서 조용하고 평범한 주변의 아름다움이 있다. 당시 우리는 <20년 후에 우리 다시 만나요>라는 노래를 불렀다. 아직까지도 20년 전 이 노래 가사가 잊혀 지지 않는다. 하지만 20년 전 그 이야기와, 옛 친구들은 이미 흐릿해진 지 오래다.

작은 남문을 나오니, 신발 수리공과 아이스캐키 리어카가 보이지 않고, 해정진으로 가던 골목길과 장정식당이 모두 이 넓은 도로 위에 사라지고 없다. 심지어 그 넓은 중관춘마저 높은 빌딩 숲이 되어 있었다.

미명호에 또 다시 작별 인사를 전해야겠다. 나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멀리

떠나있겠지만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아마 유명한 호수를 보더라도 나는 묵묵히 마음속 샘물로 그들을 씻어낼 것이다. 내가 가졌던, 변화하는 너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존재할 것이다. 나는 정말 모르겠다. 내 몸에 미명호의 유전자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미 나와 미명호는 하나인 것인가?

미명호, 당신이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미명호는 내 머릿속이 복잡할 때, 나에게 지혜를 주었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나에게 힘을 주었으며, 나도 모르는 사이 점점 세상에 찌들어 갈 때 내 영혼에 힘을 실어 주었다. 너는 내가 잠시라도 조심스런 행동을 떨지 못하게 하였고, 너는 소리 없이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었다. 여러 차례 너를 떠나고, 피하고 싶었던지, 심지어 얼마나 철저히 잊고 싶었는지.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살고 싶었지만, 나는 여전히 너에게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었다. 어떤 때는 너를 향해 달려가서 젖은 두 눈 가득, 사랑에 빠져버린 나에게 상처를 주는 너의 모습을 담고 싶었다. 어떻게 해야만 너를 진정으로 형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너를 만나보지 못한 이들에게 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 기억 속의 너는 자욱한 안개가 감싸고 있고, 자욱한 안개가 끌어안고 있다. 나는 그것이 너의 진정한 모습인지 모르겠다. 미명호에 관하여 이미 많은 아름다운 글들이 쓰여 졌다. 나는 그것에 내 글을 더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너의 매력은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것이기에. 너의 영혼은 베이징대의 정신과 풍격을 만들었기에, 미명호의 이름은 이미 중국 문화 속에 자리 잡았다.

미명호를 떠나던 그 날, 애수에 잠겨 썼던 시 한 편이 아직도 머릿속에 떠오른다.

맑고 깨끗한 호수는
여전히 보여준다.
푸른 환상을
녹색의 꿈을 꾸듯
불어온 미풍은

가지고 왔다.
이별의 슬픔을.
고요함을 불어 날리지 마라.
나는 호숫가 벤치에 앉아 쉬고 싶다.
새소리를 듣고
꽃향기를 맡는다.
더 이상 늦춰지지 않음을.
무정한 시간과 마주한다.
질푸른 수면 위에
나는 참회하고 너는 여전히 도도한데
그와의 기억이 남아있고
그녀의 희망이 반짝인다.
나는 가야한다.
올 때는 뜨거운 피로 충만했고
떠날 때는 끊임없이 생각한다.
연원의 낙엽처럼
바람에 불려간다.
그 낯선 곳으로……

17. 사랑에는 후회가 없다.

어느 여름, 레스토랑을 하는 친구가 일 때문에 중국에 가게 되었고, 그는 나에게 2주간 가게를 좀 봐 달라고 부탁했다. 그 주말 비가 내렸지만, 가게 안은 전보다 손님이 더 북적거렸다. 가게 안의 바쁜 시간이 지나자, 나는 영수증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 때, 청소를 하던 지메미가 탁자 아래에서 주웠다며 서류 가방 하나를 갖고 왔다.

“손님이 두고 갔구나.” 라고 말하며 그 가방을 열어 보았다.

그 안에 명함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것이 있으면 주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노트북과 책 한 권 말고는 우산 하나가 전부였다. 주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가방을 지배인실에 갖다 놓고 주인이 찾으러 오기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한 삼사일이 지났을 무렵, 한 젊은이가 나타나 카운터에서 그가 잃어버린 서류 가방에 대해 물어봤다. 나는 전화를 받고 나가, 그 젊은이를 바에 앉힌 후, 가방 내용물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게 그 가방을 돌려주었다. 그에게 물건을 제대로 확인해 보라고 했지만, 그는 보는 등 마는 등 하고 내가 남의 물건에 손 댈 사람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확신하며, 기어코 나에게 술을 대접하겠다고 했다.

그의 명함을 받고 나서, 그가 에릭슨 컴퓨터 엔지니어인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에게

“당신 같은 직종에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꼼꼼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식당에 물건을 놓고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날은 비가 와서 가방 안에 우산이 들어있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요.” 하며 좋은 뜻으로 말했다.

그는 맥주 한 모금을 입에 물고 웃음을 터트렸다. 그의 눈빛에는 장난스러움과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다.

그 날은 그가 여자 친구와 첫 번째로 갖는 저녁식사 데이트였다고 한다. 아침 일기 예보에서 저녁에 비가 올 것을 알고 우산을 챙겼지만, 데이트에 나온 그녀 역시 우산을 갖고 온 것을 알고, 그녀와 한 우산을 쓰고 집에 가기 위해 몰래 가방을 테이블 밑에 숨겼고, 일부러 두고 갔다는 것이었다.

이유는 이렇게 간단했다. 우리 가게에 나오는 스프처럼 달콤하면서 맛있는, 거기에 새콤함까지 더해진 첫사랑의 향기가 느껴졌다.

단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우산을 쓰기 위해 중요한 컴퓨터마저 팽개친 그의 사랑이 지나치게 로맨틱한 것처럼 보인다. 나는 웃으며 그에게 물었다.

“만약 오늘 이 컴퓨터와 서류가방을 찾지 못했다면, 당신은 그 때의 그 충동을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잔을 든 채 진심 어린 눈빛으로

“아니요, 나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후 맥주를 단숨에 들이켰다.

나도 따라 술을 단숨에 들이키며 말했다.

“그래요, 사랑에는 후회가 없어요.”

18. 그리운 어머니

오늘은 2005년 1월 15일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펜을 들었지만,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 그 때마다 펜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얼마나 어머니를 글로 표현하고 싶었던가. 하지만 나의 바람처럼 글이 써지질 않았다. 나의 표현력의 한계로 어머니의 아름다운 사랑을 표현할 수 없었고, 나의 글의 무력함으로 어머니의 위대함을 표현할 수 없었다. 혹은 많은 순간, 나의 기억력이 계속되지 못하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다. 도대체 내 마음속의 어머니를 어떻게 묘사해야 할 지 모르겠다. 백일 전 그 아침은 나의 일생에 잊지 못할 겨울날이다.

마지막이었다. 나와 어머니는 그렇게 가까이 있었지만 또 너무 멀게도 느껴졌다. 그렇게 따뜻했던 어머니의 손이 너무나도 차가웠다. 그렇게 온화했던 눈빛이었는데, 하지만 어머니는 영원히 눈을 감으셨다. 2004년 11월 16일 아침을 나는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세상에 둘도 없는 어머니의 자애로운 눈빛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 어머니는 떠나셨다. 마치 물속에서 부서지는 부평초처럼, 밤하늘에 퍼져 사라지는 연기처럼 가슴이 아플 정도로 소리도 없이 가 버렸다. 우리는 눈물을 흘렸다. 소리 내어 평평 울었다. 어머니는 우리 삼남매를 낳고 기르셨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들이 어머니의 보살핌 하에 이루어진 것들이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었으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머니의 사랑도 주셨다.

어머니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 어떠한 사랑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어머니의 사랑이 더욱 위대한 것은 어머니가 모질고 힘든 세월을 견뎌내셨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일평생 힘들게 사셨다. 우리 삼남매를 키우시며 모진 세월을 보내셨다. 옛날 어머니가 살아오신 것을 떠올리면 나는 펜을 들지만 이내 흐르는 눈물로 펜을 놓을 수밖에 없다.

어머니는 과거에 굉장한 미인이셨다고 한다. 젊은 시절 어머니는 눈부시면서

청순한 미인이었다. 성격 또한 성실함과 고상함이 어우러져, 어머니만의 독특한 매력을 만드셨다. 나이가 드신 후 어머니의 과거 미모를 몰랐던 사람이 어머니의 얼굴에서 과거의 미모를 찾기 힘들지만, 어머니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은 나이 드신 어머니를 보고 나면 가슴이 아플 것이다. 어머니는 책을 많이 읽으셨고 매우 강인한 여성이었다.

어머니는 바닷가의 작은 도시 엔타이의 한 부유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외조부께서는 고향을 위해 자신이 버신 돈을 아낌없이 쓰는 분이셨다. 어머니는 그 곳에서 어린 시절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셨다. 하지만 외조부가 돌아가시자, 16살에 어머니는 타지에서 학업과 생계를 병행해 나가셨고, 많은 힘든 세월을 보내시다가, 군에 근무하시던 아버지를 만나셨다.

어머니는 직장에 다니면서도 어머니이자 아내 역할을 모두 다 하셨다. 일이 끝나고 나면 모든 에너지를 집안에 쏟아 내셨다. 내 기억 속 어머니에게는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항상 끝나지 않는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새벽이 밝지도 않았는데 일어나셔서 일을 시작하고, 저녁노을이 저야 바쁘게 집으로 돌아오셨다. 항상 손에는 우리 가족의 식사거리가 들려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 오시자마자, 황급히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에, 빨래에, 집안 정리에, 어머니의 집안일은 밤늦게까지 계속되었다. 매일이, 1년이 그렇게 반복되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리들도 성인이 되었다.

특히 문화대혁명 시기, 혼란했던 그 시대에 아버지는 간부학교 수용소로 쫓겨나고, 어머니의 월급이 정지되어, 모든 수입이 거의 제로였다. 하지만 어머니는 어린 삼남매를 이끌고 힘들지만 꺾이지 않고 6년이라는 고난의 세월을 보내셨다. 또한 당시 가장 어린 막내 여동생이 불행히도 소아마비에 걸리자, 어머니는 군 담당자에게 매일 욕을 들으면서도, 해고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여동생을 들쳐 업고 의사를 찾아다니며 병을 치료했다. 그러기를 4년, 기적처럼 여동생의 병이 치료되었다. 그 당시 소아마비에 걸린 다른 아이들은 거의 장애인이 되었는데……. 그 때 어머니의 초췌했던 모습이 지금도 어렴풋이 기억난다. 매일 새벽 4시가

좀 넘어 일어나셔서 자식들 먼저 먹이시고, 자신은 여동생을 안고 새벽 첫차를 타셨다. 당시만 해도 대부분 의사들이 사상적 이유로 농촌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병원에는 의사 몇 명이 전부였다. 점심시간이 되어야 집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삼남매 옷을 빨고 숙제를 도와주고 저녁밥을 준비했다. 그리고 나서는 머리 한번 대충 정리하시고는 바로 일터로 나가셨다. 그런 생활이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나고, 어머니의 당시 체중은 40킬로그램이 채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어머니에게만 의지하는 생활 속에서, 큰 아들인 나는 어머니의 힘든 삶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어머니의 힘든 삶에서 나는 어머니의 원망 섞인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다. 가장 힘들었을 때도 말이다. 어머니의 일생을 통해 나는 살아가는 힘을 배웠다. 괴롭고 힘들 때마다 어머니의 평정심을 떠올렸다. 현재 생활에 불만을 느낄 때면 어머니를 떠올렸고, 어머니에게서 만족과 감사, 즐거움을 배웠다. 어머니의 평범하기가 마치 모래알갱이와 같다. 어떤 형태도, 색깔도, 소리도 없다. 하지만 어머니는 나에게 그 무엇보다도 위대하다. 어머니는 강인한 의지를 갖고 계셨고, 너무나도 자애로우셨다. 또한 자식들 향한 희생정신은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으셨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어머니의 삶을 통해 자식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 주셨다. 인류는 이런 많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닐까?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아요, 어머니가 있는 아이들은 보석과 같아요’ 이것은 내 어린 시절 불렀던 동요이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내가 어머니가 없는 아이가 되자, 마음속에서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쓸쓸함이 밀려왔다. 마치 뿌리를 잃은 나무처럼 휘청대고, 그 어떤 것에 의지하지도, 기대지도 못하게 되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많은 친구들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글을 쓰라고 재촉하였다. 하지만 펜을 들어 어머니를 쓰려고 하면 두 눈 가득 고인 눈물 때문에 글을 쓸 수가 없었다. 나에게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산처럼 높고 바다처럼 넓었기에, 어떠한 문자로도 이 사랑을 표현 할 수가 없었다. 모자간의 각별한 정은 이번 생에서 절대 지울 수 없다. ‘엄마’하고 부르는 것이 그 전에는 그렇게 아무

렇지 않게 하던 것이었는데, 하지만 이것은 지금의 나에게 영원한 사치가 되어버렸다. 어머니가 이 세상에 안 계신다는 것은 나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이다.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화신이다. 자식을 10개월 간 힘들게 품고 태어나서 자랄 때까지, 어머니는 얼마나 많은 풍파를 견디시고 힘드셨을까? 하얗게 새어버린 머리카락과 이마에 깊게 드러진 주름으로, 우리는 어머니에게 씬 없이 다가왔던 세월의 흔적을 볼 수 있었다. 그 세월의 흔적에는 변함없는 강인함과 열망이 들어 있고 뼈에 사무치는 아픔과 황혼의 기다림 그리고 자식에 대한 염려가 들어 있다. 생명은 이처럼 나약하다. 아무리 불려도 다시는 깨어나지 못한 자애로운 어머니, 가슴이 끊어질 듯 어머니를 불려보지만, 백발의 어머니는 눈을 뜨지 못하셨다. 어머니는 그렇게 떠나셨다. 하지만 어머니는 나에게 끝없는 사랑을 남기셨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어머니의 소박한 삶을 닮아가고 있었다.

어머니는 걸모습부터 마음속까지 모두 소박한 분이셨다.

“한란의 향기는 사람이 일부러 맡으려 하면 맡아지지 않고 무심한 가운데 느껴진다(着意聞時不肯香, 香無心處)”

어머니의 사랑은 말로 할 필요가 없고, 어떨 때는 어떤 표정조차도 필요하지 않다. 어머니의 사랑은 무엇인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어릴 때 침대 머리맡에 있던 따뜻한 물 한 잔이고, 아플 때 이마를 짚어 체온을 재어 주시던 손이다. 또한 겨울밤 흥미진진한 동화 이야기이며, 무더운 여름 밤 큰 부채에서 불어오던 시원한 바람이다. 어머니의 사랑은 너무 열어 느낄 수 없는 난초의 꽃 내음 같고, 색깔도 맛도 없지만 조용히 매일 흐르는 생명의 물과 같으며,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공기와 같다. 어머니의 사랑은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지 못한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잃게 되면, 다시는 그 사랑을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어떨 때 어머니의 사랑이 큰 우산과 같다. 우리를 위해 비바람을 막아주는 우산. 또 어떨 때 어머니의 사랑은 큰 바다와 같다. 자식들의 희로애락을 받아주기에……. 성인이 되고 나면 어머니와

함께 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행복함을 느낄 때 우리가 그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은 사람은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힘들 때에는 어머니만이 우리가 가장 기대고 싶어 하는 존재이다. 어머니와 자식 간의 교감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다. 집을 떠난 여러 해 동안, 많은 인정의 냉혹함과 따뜻함을 뼈저리게 느꼈고,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생활도 하였다. 하지만 낙심하고 힘들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 타올랐다. 왜냐하면 나에게 아직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어머니의 사랑이 있기에……. 내가 나약해질 때마다, 어머니는 고통을 참아내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라고 하셨다. 내가 너무 기쁨에 취해있을 때면, 어머니는 나에게 조용히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으라고 하셨다. 또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어머니는 내가 외롭지 않게 지켜주셨다.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이 우산이 영원히 내 일생을 지켜주실 수 있을까? 어머니가 안 계신다면, 내 삶이 얼마나 차갑고 외로울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다. 나는 이 우산이 내 마음을 어떤 순간이 와도 내가 나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신념으로 조금씩 조금씩 채워가고 있다는 것을 점점 믿게 되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내 몸 속에 어머니의 피가 흐르는 한, 나는 영원히 강인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우산이 되고 바다가 되어 나의 모든 것을 바쳐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것이다.

어머니는 암에 걸린 것을 알고 나서, 암이 몸 전체에 전이될 때까지, 2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수술과 화학 치료를 병행하셨다. 낙천적인 어머니는 이 기간 동안 중국의 쿤밍, 리장, 다리, 청두, 주자이거우 그리고 유럽의 이탈리아, 벨기에, 오스트리아, 영국, 프랑스 등을 여행하셨고, 5만자에 달하는 회고록도 적으셨다. 어머니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는, 극심한 고통을 참으시며, 가족들의 부축을 받으시며 고향 산동으로 돌아가서, 태산에 오르고 취푸와 옌타이를 보고 오셨다. 친척, 친구 분 한 분 한 분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모습은 보는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다.

그 때가 되어서야, 어머니가 많이 늙으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의 검은

머리카락이 있어야 할 자리에 힘없는 흰 머리만 가득했다. 자애로움이 가득한 얼굴엔 깊은 주름이 가득했다. 매끄럽고 부드러운 손에는 앙상하니 핏줄만 보였다. 어머니는 늙으셨다. 많은 세월의 풍파를 겪고,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면서, 어머니의 걸음은 점점 느려지셨고, 청춘시절 반짝이던 눈빛은 그 힘을 잃으셨다. 내가 아무리 원치 않아도 말이다. 어머니는 확실히 나이가 드셨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은 모성애로 가득한 어머니의 영혼이 아닐까? 우리가 첫 울음을 터트리며 태어난 순간부터, 어머니는 사랑으로 우리를 키우셨다.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이 젖줄이며, 끊임없이 따뜻한 손길이며,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르친 속삭임이고, 맑은 가을 호수와 같은 깊은 관심이었다. 운명에게 감사한다. 운명은 어머니와 나를 매우 중요한 무언가로 이어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다. 어머니의 사랑은 봄날의 제비처럼 우리를 위해 봄 향기를 입에 물고 찾아왔고, 어머니의 사랑은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의 어린 마음을 촉촉이 적셔주었다. 또한 어머니의 사랑은 영혼을 울리는 악보처럼 우리를 위해 가장 감동적이며 가장 찬란하고 가장 거룩한 음악을 연주하였다. 이런 우리의 고단한 운명 속에서도 어머니의 사랑에는 분노도 저주도 없었다. 어머니는 자신의 차분함과 온화함 다정함으로 삶의 어려움을 모두 헤쳐 나갔다. 어머니는 겉으로는 매우 부드러운 분이셨지만, 속으로는 매우 강직하셨다. 이런 외유내강으로 사회, 가족, 남편, 자식을 대하셨다. 이런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의 평범한 생활에 녹아들어, 살뜰한 관심과 갖은 고난에 대한 대처로, 끊임없이 생명의 따뜻함과 감동을 주었고, 이것은 영원히 이어졌다.

어머니는 결국 암을 이기지 못하셨다. 나는 해결 못할 문제는 없다고, 건널 수 없는 강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병마 앞에서 그저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잡지 못한다. 그렇게 나는 건널 수 없는 강 앞에서 더 이상 돌아오질 못할 길을 떠나는 어머니를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가 떠나신 길은 암흑 속의 또 다른 세계이다. 아무도 그 곳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 더욱이 그 곳이 어떤 모습인지 알려 줄 사람도 없다. 황량하고 끝이 없는 그 곳은, 그 곳으로 오는 사람들을 성별,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하나 품는다. 시간의 흐름에 밀려 한걸음 한걸음씩 들어온 이들과,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그 곳

으로 들어간 이들도 역시 하나하나 품는다. 암은 어머니의 생명을 빼앗아 가고, 내 마음을 부셔버렸다. 나는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살아 왔다. 어머니의 병상을 지키던 어두운 밤, 암으로 고통 받으시던 어머니는 그런 때조차도 당신의 위대한 사랑으로 나를 보살피셨다. 양상해진 어머니의 몸을 보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칼로 가슴을 에는 듯 했다. 진정한 아픔이란 무엇인지 그곳에서 깨달았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가 그렇게 천천히 내 곁을 떠나셨다. 나는 그저 어머니의 고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진효(盡孝-효도를 다하다)’라는 두 글자가 그렇게 창백하고 무력해보였다. 일생을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지만, 암이라는 병마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나는 어머니의 고통을 일부분도 나뉘가질 수 없었지만, 어머니는 병마의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자식들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심지어 자신의 일생동안 많지 않은 저축을 셋으로 나뉘, 떠나시기 전 마지막 날 밤 직접 세 아이들에게 나눠주셨다.

어머니의 사랑은 나에게 또 다시 신의 존재를 믿게 하였다. 어머니는 바로 내 마음 속의 하느님이다. 어머니가 떠나시던 그 때, 나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이 말 저 말 두서없이 하고 있었고, 고통스러운 어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편안해짐을 바라보았다. 나는 더 이상 어머니를 붙잡아 둘 수 없음을 깨달았다. 마음이 행하면서 갑자기 강렬한 고독함이 밀려왔다. 인간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가장 가슴 아픈 일인데, 내가 이런 고통을 겪게 되다니…….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신 적이 없는 어머니가 우리 곁을 떠날 때가 되자,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셨다. 나는 차가워지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가슴 찢어지게 어머니를 부르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어머니를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음을 알았다. 눈물로 갑자기 맑아진 두 눈에는 나에게 대한 걱정이 가득했고, 외로움과 나약함이 비취졌으며, 인간 세상에 대한 미련이 가득했다. 어머니는 그렇게 원치 않으셨지만 결국 두 눈을 감으시고,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 품과 아름다운 이 세계를 영원히 떠나셨다. 어머니는 떠나고, 내 가슴 속에는 지울 수 없는 아픔만이 남았다.

나는 생명이 끝이 있음을, 영원히 새롭게 남는 것은 세월에 대한 기억뿐임을 알게 되었다. 어떤 것들은 결국 바람에 사라지게 마련이다. 이런 사라짐으로 세상이 텅 비게 될지라도 말이다. 세월이 흐름이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지만, 사람들은 그래도 가족 간의 정, 특히 어머니의 정을 잊지 않는다. 미국 작가 개리 크리텐튼이 쓴 <어머니의 가격>이라는 글에서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한 대가를 돈으로 환산하면, 자식들은 매년 어머니께 63만 5천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한다. 얼마가 되었든 간에, 어찌면 이런 계산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남길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부모의 은공을 돈으로 환산하는 이런 계산법을 인정하기 힘들다. 이는 어머니라는 장엄한 단어를 모독하는 행위이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을 값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는 세상의 이치를 잘 아시는 분이셨다. 어머니는 반평생 힘든 삶을 사셨기 때문에 만년에 이르러서는 쉽게 자족하실 수 있으셨다. 특히 하느님을 믿은 이후 어머니는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셨다.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는 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축복 속에 평안히 하늘나라로 떠나셨다. 어머니가 임종을 앞두자, 교회 목사님과 친구 분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성가를 부르고 기도문을 외워 주셨다. 성가 소리에 평안한 어머니의 얼굴을 보자, 우리 삼남매는 매우 감동했다. 우리 삼남매는 모두 부자는 아니다. 그저 먹고 살만한 정도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이미 어머니가 기대했던 생활수준을 넘어셨다. 쉽게 자족하면 낙관적이 된다. 인생을 낙관적으로 사는 어르신들은 더욱 쉽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우리 형제, 자매가 화목하고 집안이 화목한 것은 우리가 교양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포용력 있고 낙관적이며 덕이 많고 존경을 받는 어머니가 있기 때문이다.

노신은 어머니를 일컬어 ‘한 방울 한 방울 피로 자식들을 먹여 살리며, 자신이 점점 야위어가도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라 하였다. 어머니는 평생 독서를 사랑하셨다. 나이가 드셔도 손자들에게 시를 외우는 것을 가르치셨다. 어머니가 달빛을 받으며 우리와 함께 글을 읽었던 그 시간들을 나는 영원히 잊지 못한다. 얼마나 많은 밤을 주무시지도 못하면서 배고픈 우리들에게 몰래 우유를 데워다 주셨

는지……. 어머니의 유서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나는 가족들과 사회에 부끄럼이 없다.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내 모든 사랑을 바쳤다. 특히 우리 세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 과정마다 나는 내 심혈을 바쳤다.”

1월 15일 밝은 달 아래, 나는 남당시대 시인 이후주(李后主)의 글귀가 떠올랐다.

“말없이 홀로 서쪽 누각에 오르니, 달은 갈고리 모양인데, 외로운 오동은 마당 깊은 곳에, 가을을 가두었네,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고, 정리해도, 여전히 어질러지는 마음, 이것이 이별의 슬픔이런가, 가슴 속에 남다른 감회가 서리네(無言獨上西樓月如鉤, 寂寞梧桐深院, 鎖清秋, 剪不斷, 理還亂, 是離愁, 別有一番滋味在心頭.)”

상황은 서로 다르지만 이별이 슬픔은 같다. 이후주는 나라 잃은 슬픔이었지만, 나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으로 가슴이 찢어진다. 어머니를 떠올리지만 다시 만날 수 없기에, 어머니와 다정했던 한 때를 그리워할 뿐이다. 나의 이런 그리움이 매번 꿈으로 나타난다. 꿈에서 깨고 나면, 얼굴에는 긴 눈물 자국만이 남아있다.

어머니는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나가는 것을 붙잡지 말고, 그대로 두거라, 사람이 나이가 들면, 결국 세상을 떠나야 하는 법, 자손들이 이를 너무 지나치게 슬퍼할 필요는 없구나.”

하지만 어머니의 아름다운 얼굴, 자애로운 표정, 어머니의 사랑을 제 마음 속에서 지울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떠오를 때면 슬픔에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네요.

어릴 적 어머니를 떠올린다. 매일 같이 일찍 일어나시고 늦게 주무시며, 매일 일찍 식사 준비하시고 식사는 대충 드셨다. 모든 일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시던 분이셨지만, 자잘한 일들 가지고 남들에게 따지지 않으셨다. 우리는 늘 상 밥 먹고, 옷 입는 일처럼 어머니의 노동과 어머니의 사랑을 당연시 생각했다. 심지어 어머니의 걱정과 아픔까지 말이다. 어머니 얼굴에 언제 그렇게 주름이 생겼는지, 머리가 언제 그렇게 하얗게 새셨는지도 신경 쓰지 않았다. 어머니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합니다’ 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 얼마나 얼마나 많았는데! 어머니의 사랑은 나무와 같아서, 봄에는 나무에 기대 꿈을 꾸고, 여름에는 나무에 기대 나뭇잎을 풍성히 피우며, 가을에는 나무를 통해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나무를 통해 깊이 생각한다. 이런 사랑은 평범하지만 누가 이 사랑의 가치를 환산할 수 있으며, 누가 이 사랑에 보답할 수 있을까?

단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는 어머니의 부름’이라고 말했다. 살아 계시던 돌아가셨던 간에, 어머니만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영원한 사랑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머니를 잃는다는 것은 영원히 잊기 힘든 상처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순간부터, 집으로 돌아가는 기쁜 그 길에는 외로움이 남는다. 집으로 돌아오는 나를 반갑게 맞아주던 어머니를 다시는 볼 수 없고, 밖에 나갈 때 다시는 어머니의 걱정스런 당부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 나는 아직도 어머니가 떠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여전히 내 곁에 있는 것만 같다. 그저 볼 수 없을 뿐, 만질 수 없을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꿈속에서 어머니와 함께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생생한데, 꿈에서 깨고 나면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가 없다. 어머니는 떠나셨지만 어머니의 미소 띤 얼굴은 내 눈앞에 아른거린다. 어머니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은 언제나 나를 따라 다닐 것이다. 영원히…….

나는 줄곧 어머니에 대한 글을 쓰고 싶었다. 어머니에게만 드리는, 하늘나라에 계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말이다.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억은 회색빛이라고 한다. 가슴 속 깊은 아픔이 과거의 추억과 부딪히면, 그 기억은 검은색이 되었다가 자신의 인생이 끝없이 아득하게 느껴지게 만든다. 아버지를 막 여윈 친구가 전화통화에서 가족을 잃는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일부분을 영원히 잃어버린 것과 같다고 했다. 이 말이 지금의 나의 아픔을 대변하는 것 같다. 그렇다. 어머니의 죽음은 마치 생명의 두 끝자락에서 서로 부딪혀서 울리는 종소리처럼 생명의 흐름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준다. 마치 천지만물이 여러 세대를 거쳐 번성해 나가고, 생명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오늘 내가 생전 어머니가 쓰시던 방에 조용히 앉아,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보니, 뼈에 사무친 어머니의 사랑이 떠오른다. 사진 속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얼마 전 모습이었다. 어머니의 두 눈에는 여전히 힘이 있으셨고, 단아하시며, 모든 것을 통찰한 것 같은 모습이었다. 또한 험난한 삶을 다 지내고도 평온한 모습이었다.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어머니도 하늘나라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말이 없는 어머니의 사랑은 북두칠성처럼 나의 긴긴 밤을 말없이 영원히 수호한다. 45년 전 오늘, 나는 이 세상에 왔고, 나는 나를 이 세상에 이끄신 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지 알지 못했다. 오늘 나는 어머니께 너무나도 묻고 싶지만, 어머니는 이미 너무 먼 곳으로 떠나셨다. 너무 멀어서 아들 목소리를 듣지 못할 곳으로…….

나는 여태껏 이렇게 아픈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떠나셨지만 다시 돌아오실 것이죠? 여전히 자애롭고 따뜻한 모습으로…….

나는 이렇게 춥고 배고픈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떠나셨지만 다시 돌아오실 것이죠? 당신의 사랑으로 나의 배고픔을 채워주세요. 자애로움으로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세요.

나는 여태껏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떠나셨습니다. 다시 돌아오실 수 있으신가요?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늘 끝 바다 끝이더라도, 당신이 가신 곳에는 신과 함께 있는 것을…….

어머니는 떠나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어머니께서 외로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외롭습니다.

첨부: 어머니 쑤슈잉(孫秀英)여사의 유서

-2004년 11월 돌아가시기 하루 전 날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구나.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니, 사랑하는 가족과 사회를 위해 열심히 산 것 같구나. 너희들과 너희들 아빠는 내 전부였다. 특히 우리 삼남매가 성장하는 과정에, 이 엄마는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 왜냐하면 나에게서는 확고한 목표가 있었거든. 그것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너희들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너희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바쳤지만, 어떨 때 이런 엄마의 방식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겠지. 이것은 엄마가 배운 것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라. 하지만 나는 내 목표를 달성했다.

내 직업에 있어서는 내 일생을 바쳤다고 할 수 있겠지, 매번 일을 할 때마다, 나의 강인한 성격을 드러냈어. 다른 이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였어. 동료들에 대해서는 더욱 관대해지고 이해하려고 했고, 진심으로 대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19. 작은 것의 아름다움 - 리히텐슈타인

얼마 전 나는 여행이 아닌 우표 수집을 이유로 중유럽의 작은 국가 리히텐슈타인을 방문했다.

나의 우표에 대한 관심은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것 같다. 시간이 지나 연구와 업무로 인해 세계 각국을 돌아다닐 기회가 많아졌는데, 이리면서 우표수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취미가 되어 버렸다. 두꺼운 우표 책자들은 나와 즐거움과 외로움을 함께 하였고, 지금은 나를 따라서 피닉스 남산 자락에 살고 있다. 내가 우표를 수집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물질적 가치 때문이 아니라, 조그만 우표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에 매료되었기 때문이다. 우표는 다른 수집품에 비해 가격이 그리 비싸지 않고, 또한 좋은 여행 기념품이 된다. 우표들을 펼쳐 놓고 감상할 때면, 여행 시 아름다웠던 추억들이 눈앞에 펼쳐진다.

우표의 발명은 10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는 수집가들이 소장품에서 당시 프랑스에서 발행한 한 우표를 볼 수 있는데, 그리스 로마신화에 등장하는 신을 모델로 한 이 우표를 통해 당시 디자인과 인쇄 수준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우표를 사용한 지역이다. 벨기에에서 1849년 발행한 우표를 보면, 우표 면에는 국호가 없고, 그저 프랑스어로 된 우정 표기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우표에는 레오폴트 1세 국왕의 초상이 그려져 있고, 국왕의 가슴에는 휘장이 달려 있어, 이를 '대휘장 우표'라고 부른다. 진귀한 우표이다. 스페인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만, 1850년이 돼서야 우표를 발행했으며, 그것에는 이사벨라 2세의 초상이 그려져 있다. 오스트리아 역시 같은 해에 우표를 발행했고, 우표의 주요 도안은 황관과 쌍두독수리로, 우표 면에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두 나라의 국호가 쓰여 있다. 네덜란드는 1852년 우표를 발행하였고, 주요 도안은 국왕 윌리엄 3세의 초상이었다. 룩셈부르크는 우표를 발행할 당시, '스웨덴' 국명을 우표에 인쇄해, 그 역사적 상황을 짐작하게 한다. 아시아는 유럽보다 늦게 우표를 발행했다. 아프가니스탄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우표를 발행했으며, 당시 우표에 새겨진 국가명은 '카불왕국'이었다. 중국은 1878년 정식으로 '대

룡(大龍)우표’를 발행하였으며, 이 우표는 현재 매우 가치가 높다.

젊은 시절 구입한 우표 중 한 우표는, 우표 면이 사람의 두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두상의 각 부분을 나눠 보면, 어떤 부분은 추상주의의 디자인이고, 또 어떤 부분은 초현실주의의 느낌이 살아있다. 내 기억으로, 이 우표는 베이징 시단의 오래된 우체국 근처 우표 시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그 당시 이런 독특한 느낌이 좋아서 구입했다. 그 때 나는 나이도 어렸고, 우표에 대한 지식도 부족했다. 그래서 이 우표가 어느 국가의 것인지도 알지 못했고, 우표 하단에 새겨진 리히텐시타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다. 대학에 들어 간 이후, 사전을 찾다가 이 우표가 유럽의 작은 국가인 리히텐시타인에서 발행된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때 나는 스웨덴 유학생 친구 프레든에게(그는 현재 재중 스웨덴 공사로 근무 중이다.) 리히텐시타인이 어떤 나라인지 물었다. 그는 서툰 중국어로 전형적인 리히텐시타인 사람에 대해 설명했다. 그들은 큰 팔자 콧수염을 기른 건장한 체격의 농부로, 수염 위로는 주름이 가득한 얼굴에 파란 눈을 갖고 있으며, 입에는 파이프 담뱃대를 물고 있다. 또한 그들은 오래된 음악을 좋아하며,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 모여 먹고 마시며, 민요를 부른다. 그 곳의 사람들은 음악을 사랑해서 거의 모든 농촌마다 그들만의 음악 애호 모임을 갖고 있으며, 매주 한 번 정도 모여 노래를 부른다. 거의 모든 농촌이 자신들의 작은 관현악단 혹은 관악대를 갖고 있다. 또한 그들은 선량하고,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것을 좋아해 길에서 만난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총을’이라는 말을 건네며 미소를 띠고 말했다. 또한 그 친구는 리히텐시타인의 우표가 유명하다며, 리히텐시타인을 우표 왕국이라고도 부른다고 말했다.

이때부터 그 우표와 ‘리히텐시타인’이라는 신비한 이름이 내 머릿속에 깊이 자리 잡았다. 많은 시간이 흘러, 내가 실제로 리히텐시타인의 영토를 밟았을 때, 나는 그제야 현실의 리히텐시타인과 내 머릿속 그림이 하나로 겹쳐지는 것을 느꼈다.

많은 중국인들은 아직 리히텐시타인에 대해 잘 모른다. 사실 리히텐시타인은

안도라, 산마리노, 모나코, 바티칸처럼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들 중 하나지만, 서양 사람들 중 리히텐슈타인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리히텐슈타인은 스위스 동부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위치하고, 스위스의 라인 강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처음 리히텐슈타인을 방문했을 때가 생각난다. 여러 해 전 스위스의 한 작은 도시인 세이트켈렌에서 경제 관련 포럼에 참가한 적이 있었다. 그 당시 점심식사 시간이 되자, 한 친구가 리히텐슈타인에 가서 점심을 먹자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너무 기대가 되었다. 우리들은 바로 차를 몰고 출발했다. 라인 강 위 길이가 몇 십 미터 정도 되는 다리 길을 지나, 십 분 정도 지났을까 우리는 그렇게 짧은 시간 만에, 리히텐슈타인에 도착했다. 친구는 이 국가의 면적이 160평방킬로미터로, 베이징 면적의 1/100정도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차를 몰고 국경을 한 바퀴 돌면 반시간 정도면 다 돌 수 있다고 말했다.

이곳은 내가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도시였기에 리히텐슈타인과의 첫 만남에 나는 너무나도 감격했다. 리히텐슈타인은 알프스 산맥 중턱에 위치하고 있으며, 라인 강의 동쪽에 있다. 서쪽으로는 스위스와 국경을 맞닿아 있고, 이 사이에 라인 강이 흐르고 있다. 동으로는 오스트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남북 길이가 50킬로미터, 동서 폭은 20킬로미터 밖에 되지 않으며, 인구는 3만여 명으로, 그 중 외국인이 1/3을 차지한다. 역사책에 리히텐슈타인 사람은 서기 500년 이후 이곳에 정착한 알레마니족의 후손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1719년 리히텐슈타인은 신성로마제국의 봉토를 받는 형태로 건국되었으며, 1806년, 1815년 각각 라인 연맹과 독일 연방에 가입했다. 수백 년 간 리히텐슈타인은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의 완충지대였고, 1434년 파두츠 가(家)와 시에렌베르크 가(家)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이후 지금의 국경선이 완성되었다. 서쪽으로는 라인 강이 흐르고, 강 맞은 편에는 스위스의 샹트갈렌이 보이며, 남으로는 오스트리아의 레티콘과 맞닿아 있다. 오랫동안 이 미니 국가의 외교 성향은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에 의해 좌우되었다. 1852년 오스트리아와 관세 동맹을 맺은 이후, 친 오스트리아 성향을 보였으나,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무너지고, 합스부르크 왕가가 세력을 잃게 되자, 친 스위스 성향으로 정치적 노선을 갈아탔다. 리히텐슈타인은 이렇게 정치 노선을 바꾸면서 복잡한 유럽 정세에서, 약소국이 살아

남는 방법으로 자신들을 보호하였다. 이는 지혜로운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1919년 리히텐슈타인은 스위스에게 외교권을 위임하고, 1921년 전화·우편 관리를 스위스에게 양위하였으며, 1923년 스위스와 경제 관세 동맹을 체결하였다. 이후 스위스 프랑이 리히텐슈타인에서 유통되기 시작하였고, 현재 리히텐슈타인의 통용되는 화폐 단위는 스위스 프랑이다. 스위스에서 리히텐슈타인으로의 이동은 제한적이지 않고 매우 자유롭다. 국가 간 경계는 그저 명목일 뿐이며, 실질적 효력은 갖고 있지 않다. 이 점은 다른 작은 나라들과도 비슷하다. 리히텐슈타인은 언어와 생활이 모두 스위스와 연결된다. 관광국에는 관광객을 대신하여 입국 도장을 찍어 주는 부서가 있다. 만약 이곳에 가서 도장을 찍고 엽서를 사고 온다면, 이는 또 다른 기념품이 될 것이다. 또 누군가는 다음과 같은 농담을 던지기도 한다. 기차를 타고 스위스 국경에서 담뱃불을 붙이면, 얼마 지나지 않아 리히텐슈타인에 도착하고, 또 담뱃불이 꺼지기도 전에 오스트리아에 도착한다고 말이다. 이는 그저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 이야기처럼 리히텐슈타인은 실제로 매우 작은 나라이다. 리히텐슈타인은 봉건시대의 유물이며, 시대적 착오가 만든 곳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경제적으로 거의 모든 부분에서 스위스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여러 국가, 그 중 특히 스위스와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어야 한다. 이런 상황이지만 리히텐슈타인에는 과거의 찬란했던 기억과 평안한 현재가 함께 공존한다. 과거 리히텐슈타인에 관한 모든 것들은 아직까지도 국민들의 삶과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다.

리히텐슈타인 국민들은 자국의 국기를 곳곳에 걸어 놓는 것을 좋아한다. 이는 리히텐슈타인이 스위스의 관리 하에 있지만, 여전히 한 주권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국기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위, 아래가 똑같이 나뉘어져 각각 파란색과 붉은색으로 되어 있다. 또한 왼쪽 상부에 금색의 왕관이 그려져 있다. 파란색은 파란 하늘을 상징하고, 붉은색은 저녁 지상의 불을 상징한다. 국기에 새겨진 왕관은 신성로마제국의 왕관으로, 이는 리히텐슈타인이 과거 신성로마 제국 왕후의 영지였기 때문이다.

리히텐슈타인은 입헌군주국으로, 15개의 지역으로 나뉜다. 25명의 의원이 국회를 구성하고, 그 곳에서 다시 선출된 5명으로 내각을 구성한다. 리히텐슈타인은 현재 입헌군주국이라는 정부 체제를 갖고 있지만, 역대 왕들의 통치 방식을 보면 매우 진보적임을 알 수 있다. 직접 민주선거로 의회를 구성하고, 의회 선거를 통해 정부 내각을 구성하였다. 국왕과 국민들과의 관계가 매우 안정적이며, 국왕 또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여태껏 국왕과 정부 간 큰 충돌은 없었다. 현재 국왕인 한스 아담 2세는 1945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출생하였고, 비엔나와 스위스에서 공부하였다, 런던의 한 은행에서 경영 수업을 받았으며, 경제학 학위를 갖고 있다. 1984년 아버지 프란츠 조세프 2세는 대부분의 권력을 아들에게 넘겨주었고, 이로써 한스 아담 2세가 정부를 이끌어 가게 되었다. 1989년 아버지 프란츠 조세프 2세가 세상을 떠나고, 한스 아담이 왕위를 계승한다고 선포하자, 그를 한스 아담 2세라고 부르게 되었다. 또한 그는 1967년 독일 태생인 마리아 크리스틴 백작 부인과 결혼하여 슬하에 4명의 아이들을 두었다. 그 중 1968년에 태어난 장자 알로이스 왕자는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한스 아담 2세는 국가의 수장이지만, 국내 외로 많은 기업 지분을 갖고 있어 역대 왕가의 재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정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만약 왕실이 돈이 궁해지면, 왕이 갖고 있는 그림 한 장만 팔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 말한다. 리히텐슈타인과 스위스와의 연맹을 더욱 강화하고, 영원히 중립을 표방하지만, 스위스가 그들을 뒷받침하는 한 누가 그들을 업신여길 것인가!

리히텐슈타인은 1868년 이후 자국의 군대가 없다. 리히텐슈타인의 마지막 병사는 1939년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 노병을 전장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집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마쳤다고 한다. 과거 리히텐슈타인도 군대를 갖고 있었다. 그 당시 리히텐슈타인은 독일제국에 5명의 군사를 바쳐야만 했으며, 기병 부대의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또한 라인 연맹에 가입 당시, 이행해야 할 조건은 원래 5명이었던 군사를 40명으로 확충하는 것이었다. 거기다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덧붙여졌다. 리히텐슈타인이 독일 연맹에 가입하던 1815년에는 40명이던 병사를 다시 80명으로 확대하였고, 여기에 예비병사 20명을 충원

하라는 내용까지 추가되었다. 이는 리히텐슈타인 입장에서 매우 힘든 일이었지만, 국가의 안위를 위하여 어쩔 수 없었다. 당시 군인 징병 나이를 18세에서 25세로 확대하여, 신체 건강한 국민은 시도 때도 없이 징병되어갔다. 하지만 리히텐슈타인의 경제 능력은 이를 감당하지 못하였다. 1866년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 이후, 독일 연맹이 해체되고, 리히텐슈타인 국왕은 1868년 군대를 해산하였다. 이후 오늘날까지 리히텐슈타인에는 군대가 없다. 60여명의 경찰과 경찰관이 전부이다. 국민이 부유하여, 가난한 사람도 없고, 치안이 양호하여, 경찰은 도둑 잡을 일도 없다고 한다. 아마도 그들처럼 한가로운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수도 파두츠는 정부와 왕가의 소재지로, 뒤로는 알프스 산이 자리 잡고 있으며, 우뚝 솟은 산봉우리들이 장관을 이룬다. 남쪽으로는 라인 강이 흐르고, 계곡과 강이 만드는 다양한 입체적 풍경은 이루 말로 표현 할 수 없다. 이곳에는 세관·공항·기차가 없으며, 심지어 버스조차도 보이지 않는다. 도시 전체가 조용하고 깨끗한 작은 마을을 연상하게 한다. 좁은 길가에는 작은 집들이 줄을 서 있고, 거의 모든 집 창가와 문 앞에 향기로운 꽃들이 가득 심어져 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내가 파두츠에 머물던 며칠 동안, 이곳은 깨끗한 공기와 따스한 태양빛, 그리고 여행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이 도시는 너무 맑고 아름답다. 대도로변 가게들은 손님들로 북적댔다. 나와 친구는 길가 커피숍에서 태양빛 아래 향기로운 커피의 향기를 느끼며, 한가롭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았다. 선물가게 앞에서 오랫동안 풍경엽서, 기념우표, 기념품을 뒤적이는 여행자들의 다양한 모습이 활기 넘치는 파두츠 풍경에 가득 담겼다. 이곳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호수를 끼고 있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자랑한다. 워킹이나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인 셈이다. 파두츠는 리히텐슈타인에서 제일 큰 도시라고 불리지만, 인구는 4000여명 밖에 되지 않는다. 활기찬 시내와 즐비한 상점을 둘러보는데 한 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다. 만약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자전거를 한 대 빌려 리히텐슈타인을 둘러보면 반나절도 걸리지 않는다. 파두츠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산허리에 걸쳐 자리 잡은 파두츠 성이다. 기록에 따르면, 이 성은 700년 전에 지어졌으며, 그 후로 계속 확대하여 완성한 것이라고 한다. 파두츠 성은 리히텐슈타인의 상징이다. 국왕이 살고 있는 이 성은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높이

의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고, 외곽이 견고하며, 울창한 나무와 험준한 바위 위에 세워져있다. 푸른 하늘 밑 하얀 구름이 둘러싼 모습이 너무 신비스럽다. 파두츠에서 파두츠 성까지 이어진 산길은 국왕과 왕실가족이 이동하는 전용도로이다. 이 길 입구에 세워진 도로 표지판에 ‘여행자 통행금지’라고 쓰여 있다. 파두츠 성은 국왕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행객에게 일반적으로 개방하지 않아, 파두츠를 찾아온 여행객은 이 신비한 고성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 아쉬움을 달래야 한다. 하지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다. 국왕과 왕실 가족이 그 곳에서 매일 아침 문을 열고 내려다보면, 리히텐슈타인을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그런 상상 말이다. 거기다 망원경까지 있다면, 국왕 가족은 당신 집 뒤뜰마저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다. 소위 말하는 ‘군림천하(君臨天下)’는 전 세계에서 이곳 국왕만 느낄 수 있다.

2차 대전 이후 리히텐슈타인은 여전히 농축업과 수공업에 의지해 연명해 나가는 가난한 국가였다. 그렇다면 이 작은 국가가 어떻게 오늘날 부유한 선진국가로 발전하게 되었는가? 제네바 대학 교수인 한 친구는 우표 대량 발행이 리히텐슈타인이 경제 발전을 하게 된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우표왕국’이라 불리는 리히텐슈타인은 1912년 우표발행을 시작해서, 우수한 도안 설계와 선진적 인쇄 기술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 수도 파두츠에는 세계에 유일무이한 우표박물관과 많은 전문 우표 판매 가게가 있다. 여행객은 리히텐슈타인에 와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수집 또는 기념 등의 이유로 이곳에서 발행한 우표를 구입하는 것이다. 리히텐슈타인은 매년 다양한 새로운 우표를 세계 각국에 발행한다. 다양한 우표 종류와 주제를 갖고, 신선한 디자인과 아름다운 모양으로, 뛰어난 소장적 가치를 지닌다. 리히텐슈타인은 우표 산업 발전을 위해 전 유럽의 미술 디자이너를 동원해 우표를 디자인하고, 많은 돈을 지불하여 미술 대가들을 초청, 우표 도안을 디자인하게 하였다. 또한 소중한 명화를 본 판 우표를 만들어 세계 각국의 우표 애호가들의 이곳으로 모이게 만들었다. 매년 세계 각국의 많은 우표 수집가들이 리히텐슈타인에서 발행되는 새로운 우표를 예약하기 위해 이곳으로 몰려온다. 매년 우표 수입이 GDP의 12% 이상을 차지한다. 작은 나라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이곳의 우표와 소인은 여행자와 우표 수집가의 귀중한 기념품이 된

다. 나는 한 가게에서 ‘당신의 모습을 우표에 담아 드립니다.’ 라는 영문 광고 문구를 보게 되었다. 또한 광고판에는 서로 다른 화폐를 지불 시, 그 수만큼 우표를 만들어 준다고 적혀 있었다. 우리는 호기심 반, 놀라움 반하는 마음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먼저 사진을 찍고 컴퓨터를 통해 당신의 모습을 우표에 그려 넣는다. 파두츠 성, 국왕, 왕후 및 왕세자, 왕세자비, 황실 휘장 등이 엽서 위에 새겨지고, 옆에는 리히텐슈타인 연호와 문자도 새겨진다, 또한 당일 소인까지 찍혀, 정말이지 잊을 수 없는 기념품이 만들어진다. 이 엽서는 만드는 데 10달러 정도가 들지만, 당신의 찬란한 형상이 우표에 새겨진다는 것은 잊을 수 없는 행복한 일이다. 이런 기쁨을 마다하겠는가? 파두츠에서 가장 시끌벅적한 곳은 시 중심에 위치한 우체국으로 가족, 친구들에게 엽서를 보내려는 사람들과 우표를 구매하려는 사람들, 또 전문적으로 우표를 소장하려는 사람들로 매일 인산인해를 이룬다.

리히텐슈타인의 또 다른 명물은 의치(義齒)로써, 전 세계 생산량의 1/3을 차지한다.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다. 우표와 의치 수입만으로 리히텐슈타인 사람들은 많은 부를 축적하였고, 또한 이를 통해 리히텐슈타인은 세계 부유국가의 선두자리에 서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리히텐슈타인의 국민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어섰고, 미국과 기타 유럽 선진국보다 더욱 높은 수치를 보여줬다. 친구들은 리히텐슈타인이 세계에서 유명한 세금 은닉의 ‘천국’이며, 돈세탁의 ‘성지’라고도 말했다. 사실 이 작은 국가의 최대 수입은 외국 회사 등록비이다. 이곳에서는 국가에 상관없이 어떠한 사람도 회사를 설립 할 수 있으며, 수속이 간단하고 회사 담당자의 비밀 역시 철저히 보장한다. 그리고 그저 얼마 안 되는 등록비를 받는데, 다른 소득세나 기업세금 등은 받지 않는다. 이는 전 세계 탈세자와 검은 돈을 세탁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리히텐슈타인에는 많은 기업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런 회사들은 건물은 없고, 그저 우체통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리히텐슈타인은 세계 각국에서 온 등록비에만 의지해도 충분한 부를 누릴 수 있다. 어찌면 이 때문에 이곳 사람들이 이렇게 한가롭게, 일도 거의 하지 않으면서 먹고 즐기며 사는 것인지도 모른다. 스위스 은행의 비밀 보장 체제를 이어 받았기 때문에 이곳은 자연스레 세계 부자들의 예금 혹은 돈세탁의 최

적의 장소가 되었다. 미국이 사담 후세인을 체포했을 때, 돈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후세인의 거액 재산을 추적하였다. 미군이 바그다드를 점령했을 때, 조사관은 대규모 자본이 이라크 정부 통제하의 은행계좌에서 리히텐슈타인 은행 개인계좌로 넘어간 것을 발견하였다. 한 교수는 사담 후세인의 재산을 찾기를 바라는 것은 미국 정부 뿐 아니라, 러시아, 프랑스 등 돌려받지 못한 채권국과 각종 금융기구들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거액의 재산 분배 과정 중, 어느 시점에서 자신들의 몫을 찾을지 암암리에 고민하고 있다.

미국 <포브스> 잡지에 발표된 전 세계 지도자들이 재산 순위를 보면, 후세인이 20억 달러로 10위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포브스지의 판단이 너무 보수적이라 여긴다. <이코노믹 주간>은 미국관방과 개인적 평가들에 따르면, 후세인과 그 가족들은 해외에 70억에서 100억 달러의 자산을 숨겼을 것이며, 재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을 것이라 전하였다. 이라크에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은 생화학 무기처럼, 후세인이 얼마나 재산을 갖고 있는지는 계속 미국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사람들은 단지 그것들이 은행의 어느 비밀 계좌에 숨겨져 있을 거라고만 추측할 뿐이다. 현재 미국 중앙 정보국은 이라크 상인 알마하드를 주목하고 있다. 그가 사담 후세인을 대신해서 재산 관리를 해왔을 것이라 의심하고 있다. 그는 리히텐슈타인에 많은 회사를 등록하고, 이 회사를 통해 복잡한 교역활동을 하여 돈 세탁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리히텐슈타인 은행은 고객의 비밀 보안은 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내세웠고, 미국은 은행의 협력을 받지 못하자, 사담 후세인 정권과 관련 있는 계좌들을 증거로 내세웠다. 이에 리히텐슈타인 은행은 미국에 협력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은행 계좌에 접근하지 못했더라면, 미국 조사기관은 사담 후세인과 연관된 계좌들을 증명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는 미국 정부를 ‘계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같은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만들었다.

사실 리히텐슈타인에서 돈세탁은 사담 후세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톰슨-CSF 그룹의 대만에 판매한 프랑스 군함 거액 로비도 이에 해당한다. 프랑스 사법 당국조사에 따르면, 타이완 고위층이 대규모 커미션을 계좌에 은닉했으며,

타이완 무기 브로커 왕환푸가 스위스에서 이를 폭로했다. 스위스 사법당국은 그가 리히텐슈타인의 각각 다른 은행에 개설한 계좌에 약 50억 프랑의 ‘예금’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 사법 당국의 조사는 톰슨-CSF 그룹이 암암리에 나눈 커미션의 면모를 폭로했을 뿐 아니라, 프랑스의 모든 무기회사가 1990년대 타이완 고위층 간부에게 전달한 금액의 정황을 보여주었다.

그래도 리히텐슈타인에서는 여러 해 동안 폭력 충돌과 테러, 심각한 절도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사소한 다툼조차 그 발생 빈도가 낮아 리히텐슈타인 사회는 매우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평온하게 자신의 일을 하고 법을 준수하며 자신의 가정에 충실하게 생활한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친구들은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해 주었다. 이 나라의 정부 기구는 눈에 잘 띄지 않는 2층 높이의 흰색 건물이다. 2층에는 수상실이 있고, 1층에는 법원이 있으며, 지하에는 감옥이 있다. 어느 날 부수상이 야근을 하게 되었는데, 부수상의 상황을 모르는 비서가 사무실 문을 잠궈 버려, 부수상은 아무도 없는 건물에서 문을 두드리며 외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시간이 좀 지나자, 잠에서 겨우 깬 한 사람이 머리를 산발한 채 나타나, 그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부수상이 그에게 누구냐고 묻자, 그는 자신이 지하실에 수감되어 있는 죄인이라고 말했다. 어떻게 사무실 열쇠를 갖고 있냐고 묻자, 그는 만약 자신이 열쇠를 갖고 있지 않았더라면 당신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냐며 되물었다. 이 죄수는 부수상에게 문을 열어 준 후, 지하실에 있는 감옥으로 다시 들어갔다고 한다. 부수상은 열쇠가 있는데 어째서 감옥을 나오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온 국민이 나를 아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냐며, 외국으로 도망가겠냐며, 외국으로 간다 해도, 리히텐슈타인보다 더 살기 좋겠냐고 대답했다고 한다.

과두츠에서 한가로이 돌아다닐 때, 화려한 여행 기념품 가게 안팎으로 크고 작은 방울들이 가득 달려 있는 것을 보았다. 당시 나는 왜 이곳에 이런 기념품을 팔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궁금했다. 나중에 레티콘을 여행할 때, 케이블카를 타고 산을 오르다가 맑고 청아한 방울 소리에 고개를 내밀고 밖을 보

니 산 전체에 방목되어 있는 소떼와 양떼를 보게 되었다. 그것들은 풀을 뜯고 있었는데 목에 너나 할 것 없이 이 방울을 달고 있었고, 아름다운 방울 소리는 그곳에서 나온 것이었다. 원래 이 방울은 알프스 산에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건이었다. 예술은 생활에서 비롯된다는 이 말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 산에 흠어져 있는 소떼와 양떼를 찾기 쉽게 하기 위해 이렇게 한 것이다. 또한 적막한 산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음악소리를 더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리히텐슈타인은 작은 나라지만, 역사상 위대한 음악가인 요셉 라인 베르거와 하인리히 하러와 같은 걸출한 작가를 배출하였다. 몇 년 전 미국 유명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 주연의 <티베트에서 7년>은 상영 당시 미국과 여러 나라에서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이 영화는 리히텐슈타인의 하인리히 하러의 동명 소설을 각색한 것으로, 등반가인 작가는 1944년 시장으로 건너가, 1946년 당시 11세이던 달라이 라마의 개인교사를 맡는다. 1951년 하인리히 하러는 리히텐슈타인에 정착하였고, 이 기간 동안 글을 써서 <티베트에서 7년>을 출판하였다. <티베트에서 7년>은 1952년 출판 이후 현재까지 4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500만부 이상이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리히텐슈타인에서 여행객의 발길을 사로잡는 장소는 새로 지어진 예술 박물관으로, 과거 국가 예술 작품 뿐 아니라, 국왕과 개인 소장가의 많은 수집품을 만날 수 있다. 이곳에서 당신은 17세기 폴란드 작품과 유명한 근·현대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롤란트사베리의 1612년 작 <꽃 한 다발>, 호안미로의 1979년 작 <꿈꾸는 꿀벌>, 솔 르위의 1999년 작 <쿠바>를 만날 수 있다.

리히텐슈타인에서 돌아온 이후, 나의 우표 수집책에는 리히텐슈타인이 새겨진 우표들이 더욱 늘어났다. 그 중 2001년 발행된 리히텐슈타인 <세계명화 우표> 세트 두 장은 1993년 발행을 시작한 명화시리즈 중 하나로, 리히텐슈타인 왕실이 17세기부터 수집을 시작한 세계 각국의 명화와 예술품들을 보여준다. 이번에 구입한 우표 역시, 스위스 화가 오네게르의 두 작품을 우표에 그린 것으로 이 작가의 작품은 콘스타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또 <기독교 2000년>이라는 두

장이 연결된 우표가 있다. 한 우표에는 마디아스스토마의 1642년 작품이 그려져 있고, 또 한 우표에는 페르디난디 구엘의 근대 추상도형회화 작품이 들어 있어, 2000년의 역사의 강으로 함께 연결되었다. 가장 인상 깊은 작품은 <장애인과 세계 평화>라는 우표 세트로, 우표 위에 그려진 세 점의 그림은 모두 손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입 또는 발로 그린 것이다. 이 작품에 참가한 세 명의 작가는 모두 장애를 갖고 있다. 그들은 1995년 리히텐슈타인의 구족 작가 연합회에서 개최한 <평화를 꿈꾸다>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전 세계 국민들에게 세계 평화 수호를 외치기 위해, 리히텐슈타인 우정국은 기발한 아이디어로 세 명의 구족 작가의 작품을 우표에 옮겨 놓았고, 한 세트에 세 장씩 들어 있는 한정판 엽서를 선보였다. 그 중 첫 번째 엽서의 가격은 1.4 스위스 프랑으로, 이탈리아 예술가인 안토니오 마르티니의 작품 <평화의 비둘기>이다. 마르티니는 1941년 출생 당시 뇌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1961년부터 발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두 번째 엽서의 가격은 1.7 스위스 프랑으로, 아르헨티나 예술가 알베르토 알바레즈의 작품 <세계평화>이다. 그는 1959년 출생 당시 뇌성마비를 앓아, 태어날 때부터 휠체어 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예술적 능력을 사장시키지 않고, 입을 사용해 예술 활동을 시작했다. 세 번째 엽서의 가격은 2.2 스위스 프랑으로 일본 예술가 이치 미나미의 작품 <무지개>이다. 이치 미나미는 1955년 출생하여, 1972년 운동을 하던 중 의외의 사고로 전신마비가 된다. 하지만 불굴의 의지로 이를 극복, 지금은 성공한 구족작가가 되었다.

피닉스의 아름다운 저녁노을 아래에서, 이 우표를 감상하고 있다면 리히텐슈타인 길가에 가득 걸려 있던 우표 광고와 우뚝 솟은 고성들이 떠오른다. 이런 상상을 해본다. 만약 집 뒤뜰에 큰 유럽 지도를 펼쳐 놓는다면, 우표처럼 작은 아름다움을 가진 리히텐슈타인을 적당히 유럽 중부에 끼워 넣고, 수집품 같은 아름다움과 매력을 한껏 뽐낼 것이라고……. 이런 작은 것의 아름다움은 언어로 형용하기 어렵다. 그저 요셉 라인베르거의 유명한 노래가사로 묘사할 뿐이다.

높고 높은 알프스 산은
우리의 안녕을 수호하고

라인 강은
산 무리의 품안에서 구불구불 세차게 흐른다.
사람들은 나를 행복한 땅이라 부른다.
내 이름은 리히텐슈타인.
나는 도시의 화려한 걸모습은 모른다.
그저 이곳의 아름다운 전원만을 알 뿐이다.
하늘은 높다.
산에는 독수리가 자유롭게 날개를 펼치고
땅에는 푸른 초원과 목장으로 가득하다.

